

# 제주 방언

강 영 봉

## 차 례

### I. 체주어 개념

### II. 자음과 모음

1. 자음
2. 모음

### III. 형 태

#### 1. 낱말 만들기

- 1) 파생어
  - (1) 접두파생어
  - (2) 접미파생어
- 2) 합성어
  - (1) 명사
  - (2) 동사
  - (3) 형용사
  - (4) 부사

#### 2. 체언과 조사

- 1) 명사
- 2) 대명사
  - (1) 인칭대명사
  - (2) 지시대명사

#### 3) 수사

- (1) 양수사
- (2) 서수사

#### 4) 조사

- (1) 격조사
- (2) 특수조사

#### 3. 용언과 어미

- 1) 동사
- 2) 형용사
- 3) 보조용언

- 4) 어간과 어미
  - (1) 어간
  - (2) 어미
    - 가. 종결어미
    - 나. 연결어미
    - 다. 전성어미
    - 라. 선어말어미

- 4. 불변어
  - 1) 관형사
  - 2) 부사
  - 3) 감탄사

#### IV. 통 사

- 1. 시간 표현
  - 1) 과거
  - 2) 현재
  - 3) 미래
  - 4) 어휘

- 2. 동작 표현
  - 1) 완료상
  - 2) 진행상
  - 3) 전망상

- 3. 사동과 피동
  - 1) 사동
  - 2) 피동

- 4. 부정 표현
  - 1) 단순 부정
  - 2) 능력 부정
  - 3) 금지

- 5. 경어 표현
  - 1) 상대 높임
  - 2) 객체 높임

6. 문장 종결

- 1) 진술형
- 2) 의문형
- 3) 명령형
- 4) 감탄형
- 5) 청유형

V. 어 휘

1. 중세어
2. 한자어
3. 몽골어
4. 특이어
5. 반복어
6. 관용어

<부록: 제주어 표기법>

<참고 문헌>

## I. 제주어 개념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제주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제주도방언’ 또는 ‘제주방언’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보통 방언학에서 ‘방언’이라 함은 한 국어를 이루고 있는 하위 언어 체계로서의 방언을 뜻한다. 국어라고 한다면 경기도방언을 중심으로 전라도방언, 경기도방언, 강원도방언, 충청도방언 그리고 제주도방언이 모여 형성된 것이니 각 방언의 총화가 곧 국어인 셈이다.

그러나 방언(方言)이라는 명칭에는 국어를 형성하고 있는 한 하위 언어체계라는 뜻 말고도 중국어에 대한 한국어라는 개념과 표준어에 대립하여 저급의 언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의 “次次雄 或云 慈充 金大問云方言謂巫也”(차차웅 또는 자충은 김대문이 말하기를 한국어로 무당이라 말이다.)라는 기록이라든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50장)의 “阿其 方言小兒之稱也 拔都 或作 拔突 蒙古語 勇敢無敵之名也”(아기는 한국어로 꼬마 아이를 말한다. 발도 또는 바들은 몽골어인데 용감하여 적이 없음을 말한다.)라는 주석의 내용에 쓰인 ‘방언’은 다같이 중국어에 대한 한국어라는 개념으로,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에서 볼 때 한국은 모서리인 변방에 위치한 작은 국가라는 뜻으로, 주변성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표준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인 경우는 표준어의 정의 즉,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부터 확인된다. 표준어 사용 여부가 곧 교양이 있고 없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방언을 쓰면 교양이 없는 것이 되니 학교 교육에서는 물론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 강요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제주도방언, 제주방언이라고 하면 주변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교양에서 멀어진다는 감을 받는다.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신라방언’은 ‘신라어’, ‘고려방언’은 ‘고려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신라방언=신라어, 고려방언=고려어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탐라방언’은 ‘탐라어’가 될 것이고, ‘탐라어’이니 ‘탐라’를 ‘제주’로 바꾸어 ‘제주어’라 이름하여도 좋을 것이다. 곧 제주 지역에서, 제주 사람들에 의해 쓰이는 언어를 ‘제주방언’, ‘제주도방언’이라는 이름 대신에 ‘제주어’라 부르려 한다. 이 ‘제주어’라는 명칭은 1947년 발간된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방언집》(濟州島方言集)에서 비롯되었지만, 1995년 《제주어사전》에 와서 확호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자도(楸子島)에서 쓰이는 언어는 제외된다.

그런데 가끔 ‘사투리, 지역어, 개인어’라는 용어도 종종 쓰이는데, ‘사투리’는 비언어학적 용어이며, ‘지역어’란 용어는 방언 구획이나 언어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지닌다. ‘개인어’는 어느 한 개인의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이나 현장에서 방언 조사를 할 때는 그 수적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니 ‘개인어’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전 k1001 고통만>, <사전 k2002 제주어말하기대회>

우리가 간단하게 그 요체를 살펴려는 제주어에 대한 옛 선인들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제주어에 대한 맨처음 평가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 보인다. 곧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 풍속’에 “지방 말이 간삽하다. 촌 백성의 말이 간삽하고 앞이 높고 뒤가 낮다.”(俚語艱澁 村民俚語艱澁 先高後低)는 것이다. 말 자체가 말라서 윤택하지 않고 곁곁하다는 평가다. ‘앞이 높고 뒤가 낮다’는 말소리 곧 음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金淨)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1520. 9.~1521. 10. 기록)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 높은 게 바늘과 같고 또한 많은 말은 알기가 어렵다.”(土人語音 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라 하여 발음적 특징과 함께 어휘적 특이성을 지적하고 있다. 어휘 자체가 다르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 1577. 11.~78. 2. 기록)에도 “(27일)…언어는 가끔 문자가 섞이는데 남자의 존칭을 ‘관관’이라고 하고 토자 산자는 모두 방언으로 쓰지 않고 글자는 한음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유가 대단히 많다. 귀양살이를 한 신장령은 역관이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이 섬의 말이 중국말과 아주 흡사하여 소나 말을 몰 때의 소리는 더욱 분간하지 못하겠다. 대개 기후가 중국과 차이가 없어서 그러한 것인지 일찍이 원 나라가 점거하여 관리를 여기에 둔 때문에 중국 말과 서로 섞이어 그런 것인지 하였다.”(言語往往雜以文字 若男子之尊稱曰官官 若土字蒜字 皆不用方言 若不好字用漢音 此類甚多 謫人申長齡 乃譯官也 嘗曰 此島語音 酷似中華 如驅牛馬之聲 尤不可分辨云云 盖風氣與華不隔而然歟 曾爲元朝奪據 置官於此 故與華相雜而然歟) <사진 k2003 남명소승>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 1601) ‘도해’에서는 “처음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니 뱀새 우는 소리와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고 주석에 “마을에 사는 사람의 말소리는 모두 이와 같다. 관인과 성 가운데 있는 자는 가끔 사투리가 섞이기는 해도 대개 알아듣기 어렵지 않다. 호남 사람과 마찬가지로.”(初聞人語 如鳩舌啁啾 不可辨也 村中之人 其語音 皆如此 官人及在城中者 往往雖雜以鄉音而略不艱澁 如湖南人一般)라 하였다.

또 ‘풍물’에서는, “사투리로 ‘숲’을 ‘곶’이라 하고 ‘산’을 ‘오노음’이라 하며 ‘손톱’을 ‘굽’이라 하며 ‘입’을 ‘굴레’라 하고 ‘굴레’를 ‘녹대·가달’이라고 한다”(俚語以藪爲花 以岳爲吾老音 以爪爲蹄 以口爲勒 勒爲祿大 爲可達 云)라 하여 특이한 어휘 몇 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k2004 남사록>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 1653) ‘풍속’에,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 백성들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고, 말소리는 앞이 높고 뒤가 낮다. 김정(濟州) 풍토록에는 이곳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 높은 게 바늘과 같고 또한 많은 것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주기에는 특이한 어휘가 많아 ‘서울’을 ‘서나’라 하고 ‘숲’을 ‘고지’, ‘오름’을 ‘오름’, ‘톱’을 ‘굽’, ‘입’을 ‘굴레’, ‘굴레’를 ‘녹대’, ‘재갈’을 ‘가달’이라 하는데 그 말소리는 이와 같다 하였다.”(俚語艱澁 村民俚語艱澁 先高後低 金淨 風土錄 土人語 音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州記 語多殊 以京爲西那 以藪爲高之 以岳爲兀音 謂爪爲蹄 謂口爲勒 草羈謂之祿大 鐵銜謂之可達 其語音類如此) 하여 ‘서울=서나, 숲=고지, 산=오름, 톱=굽, 입=굴레, 굴레=녹대, 재갈=가달’ 등 몽골 차용어까지 예로 들어 제주어가 간삼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탐라지》 ‘제영’ 편에는 김종직(金宗直)의 소서가 달려 있는데, 을유년 2월 28일 직산의 성환역에서 자는데 제주의 약초를 공납하는 사람 김극수(金克修)도 왔다. 밤에 이야기를 하면서 대략 풍토와 물산에 대하여 묻고 드디어 그 말을 수록하고 탁라가(毛羅歌) 14수를 지었는데 그 첫 수도 ‘말은 알기가 어렵다’라 하였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사진 k1005 탐라지>

역참 객사에서 서로 알고 친하니(郵亭相揖若相親)  
보자기 속 갖가지 약물이 진귀하구나(包重般般藥物珍)  
옷에서는 비린내 나고 말은 알기 어려우니(衣袖帶腥言語澁)  
보아하니 그대는 진실로 해중 사람이로다(看君眞是海中人)

신광수의(申光洙) 《석북선생문집》(石北先生文集, 1764년 기록) 권7 <탐라록(耽羅錄)>에 58수의 노래 가운데 ‘토풍(土風)’에서 “말소리는 가늘고 급하다.”(方音多細急)라 하였다.

오래 전 나는 남쪽 나그네(久我南中客)  
 이젠 자못 토속에 익숙해지니(頗於土俗詳)  
 말소리는 가늘고 급한 데가 많고(方音多細急)  
 백성의 성은 반쯤 고씨와 양씨네(夷姓半高良)  
 오직 구멍이 승승 뚫린 돌만 보일 뿐(只見蜂房石)  
 말총 옷 입는다는 건 헛소문이네(虛聞馬尾裳)  
 북쪽 사람들이 이곳 일을 물어오면(北人如問事)  
 돌아가 이야기가 길어지겠네(歸作話頭長)

옛 선인들의 제주어에 대한 평가는 ‘말소리는 가늘고 급하며, 어휘 또한 특이하다’로 귀결된다.

## II. 자음과 모음

### 1. 자음

제주어의 자음 체계는 표준어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민정음 자음 체계와 제주어 자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ㄷ ㅂ ㅈ ㅊ	ㄱ ㄷ ㅂ ㅈ ㅊ ㅎ
ㅋ ㅌ ㅍ ㅊ ㅊ	ㅋ ㅌ ㅍ ㅊ ㅊ ㅎ
ㄴ ㄷ ㅂ ㅈ ㅊ	ㄴ ㄷ ㅂ ㅈ ㅊ ㅎ
ㅇ ㄴ ㄹ	ㅇ ㄴ ㄹ ㅅ

<제주어 자음 체계>                      <훈민정음 자음 체계>

이 두 체계에서 발견되는 것은 후음 계열에서 후두유성음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 1) 후두유성음

제주어의 자음은 표준어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보통이나 실은 그보다 1개가 더 많은 20개의 체계를 지닌다. 후두유성음([ɦ])이 그것으로, 이는 15, 16세기의 /ㄹ/과 모음 사이에 사용되었던 /ㅇ/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놀애’(歌) ‘물애’(沙) 따위에서 /ㄹ/ 다음의 /ㅇ/은 자음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ㄹ/이 다음 음절 첫머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다. <사진 k1006 훈민정음①>

제주어에서도 ‘이레’(七日)가 [ilwe]로, ‘고리’(環)가 [kelhi] 또는 [keli]로, ‘멸위’(산포도)가 [mɛlwi]로 실현된다. 이는 곧 적극적 ‘ㅇ’이 마치 자음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위치한 ‘ㄹ’이 다음 음절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ㄹ’ 다음에 있는 ‘ㅇ’이 음가 없는 ‘ㅇ’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후두폐쇄음의 존재 여부, 이른바 받침음과 순경음도 확인된다.

#### 2) 후두폐쇄음

또 하나는 후두폐쇄음[ʔ]의 존재다. 강원도방언에서처럼 제주어에서도 ‘ㄷ’변칙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곧 ‘졸다(偏)·돌다(走)·진다(汲)’등은 ①“졸고 졸지 졸양 졸곡말곡; 돌고 돌지 돌단 돌곡말곡; 진고 진지 진단”과 ②“졸고 졸지 졸당 졸곡말곡; 돌고 돌지 돌단 돌곡말곡; 질고 질단”으로 변한다. 이는 곧 그 중간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증거로는 표준어에서 ‘ㄷ’변칙인 ‘실-(載)’이 제주어에서는 ‘실르다·시르다·시끄다’가 존재함이다.

### 3) ㅈ[z] 유지

다음과 같은 어휘에서도 이른바 반치음(半齒音)이 존재함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아시(아수), ㄹ새(ㄹ애), ㄹ스락(ㄹ스라기), 구시(구시), 그시렁(그스름), 난시(나시), ㄹ음·ㄹ슴·ㄹ심(ㄹ슴), 부으레미·부스레기·부스럼지(브스름), 처엄·체얌(처섬) 등

### 4) 순경음 /ㅃ/ 유지

‘ㅃ’의 존재도 어느 정도 존재의 흔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어휘에서 찾을 수 있다.

허위다; 허비다, 따울리다; 다들리다; 다불리다, 이불다; >유울다

### 5)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가운데 거센소리로 변화한 것(㉠)이 있는가 하면, 표준어처럼 된소리로 변한 것(㉡)도 있다.

㉠ ㅍ>ㅑ(신착 어서젓저)

ㅃ다>츄다(웁웁 츄다)

ㅃ다>투다(오고쟁이 투라)

ㅃ다>털다(박박 털다)

ㅃ다>치다(떡 치다)

ㅃ다>체다(베 체라)

ㅃ다>초다(불 초라)

ㅃ>테(즈식 테 못 벗나)

㉡ ㅃ다>꺼지다(베가 꺼젓저)

ㅃ다>궤다(바눔에 실 궤라)

ㅃ리다>뜨리다(막 뜨리다)

대체적으로 ‘ㅃ’계통은 자음군으로(cVc>cc 예; ㅃ술>밭, ㅃ들>빨 따위) 규정하는 반면, ‘ㅃ’ 계열은 된소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주어 ‘시꾸다(꿈; 夢→꿈 속에 나타나다)’와 ‘시동(똥; 糞→거름)’과 관련시킨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 또한 어두자음군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의미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 6) /ㅆ/은 받침으로 쓰이지 않는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 ‘있다’의 제주어는 ‘잇다, 이시다, 싯다’로 ‘ㅆ’(쌍시옷)이 받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나만 갔다 오크매 이디 시라.(나만 갔다 오겠으니 여기 있어라.)
- 나신티도 싯저.(나한테도 있지.)
- 돈, 이시픈 좋은 거 아닌가?(돈,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또 선어말어미 ‘-엇(았)-’도 ‘-앗(엇)-’으로 나타나니 제주어 표기법에서도 “선어말어미 ‘-았 -/-엇-’에 해당되는 형태는 ‘-앗-/-엇-’으로 적는다.”라 밝히고 있다. 그래서 ‘보았수다, 먹엇고나, ㅎ엿고나, 갓주기, 쉬엇다, ㅎ엿저’ 등으로 쓰지 ‘보았수다, 먹었수다, ㅎ엿수다, 갓주기, 쉬었다, ㅎ엿저’로 쓰지 않는다.

## 2. 모음

제주어의 모음 체계는 노년층과 청·장년층이 다르다. 곧 노년층은 9개 단모음 체계이고 청·장년층은 7개 단모음 체계이다. 우선 노년층 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

ㅣ ㅡ ㅏ  
 ㅓ ㅕ ㅗ  
 ㅛ ㅜ ㅝ

### 1) /·/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아래아(으)가 후설저모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훈민정음의 ‘· 舌縮而聲深’이라는 표현에 가깝다. 제주어에 아래아(으)를 유지하고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 ‘용자례’에 예로 든 어휘 ‘달(月), 특(頤), 드리(橋), 꾀(小豆)’을 비롯하여 많은 어휘들이 ‘아래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 k1007 훈민정음②>

ㄹ놀다(細)>ㄹ놀다  
 ㄹ새(剪)>ㄹ새 ㄹ세  
 ㄹ술>ㄹ을 ㄹ슬 ㄹ실  
 ㄹ(邊)>ㄹ  
 ㄹ물>ㄹ물  
 ㄹ(刃)>ㄹ  
 ㄹ다(甘)>ㄹ다  
 ㄹ(鷄)>ㄹ  
 ㄹ(馬)>ㄹ  
 ㄹ슴(心)>ㄹ슴  
 ㄹ름(風)>ㄹ름  
 ㄹ다(明)>ㄹ다  
 ㄹ(米)>ㄹ  
 ㄹ(女息)>ㄹ  
 ㄹ(肌)>ㄹ  
 ㄹ(汗)>ㄹ  
 ㄹ(子)>ㄹ

참(眞)>참  
푼리(蠅)>푼리  
팔(肱)>팔  
흙(土)>흙 흙

그런데 이 ‘아래아’도 표준어에서처럼 ‘ㅏ’나 ‘ㅑ’로 변하기도 하지만 ‘ㅓ’나 ‘ㅣ’ 등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 . > ㅏ  
남(他)>남, (놈)  
사람(人)>사람, (사름)  
땀(汗)>땀, (땨)  
ㄹ뉵(滿)>가득, (ㄹ뉵)
- ㉡ . > ㅑ  
나ㄹ내>나그네  
마순(四十)>마은  
보드랍다>보드랍다  
하늘(天)>하늘
- ㉢ . > ㅓ  
남(他)>놈, (남)  
마늘(蒜)>마농  
바늘(針)>바농  
즈릭(柄)>즈룩, (즈룩, 즈룩, 츠룩)
- ㉣ . > ㅣ  
ㄹ술>ㄹ실, (ㄹ을, ㄹ슬)  
아스(弟)>아시  
여스(狐)>여시  
아춤(朝)>아침, (아척, 아척)
- ㉤ . > ㅓ  
ㄹ물다(旱)>ㄹ물다, (ㄹ물다)  
ㄹ르(鹿)>노루, (노리, 노로)  
불(件)>불  
즈릭(柄)>즈룩, (즈룩, 즈룩, 츠룩)
- ㉥ . > ㅓ  
도죽>도적  
버리다(捨)>버리다, (버리다)

벌써(早晨)>벌써, (벌써)  
 아침(朝)>아침, (아침, 아침)

청년층에서는 7개 단모음 체계로 이른바 아래아(으)와 ‘에’와 ‘애’ 구별이 없어졌다는 점이  
 다. 노년층 체계와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다.

ㅡ ㅏ	ㅡ ㅏ
ㅑ ㅓ ㅕ	ㅑ ㅓ ㅕ
ㅗ	ㅗ ㅛ
<청·장년층>	<노년층>

2) /애(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준어 ‘애’는 제주어에서 제1음절과 단음절에서는 ‘애’나 ‘에’로 구분  
 되는데, ‘애’로 나타나는 어휘들은 원래 ‘애’음이었고(예: 내낭(始終)-내내, 내(我)-내, 새(鳥)-  
 새 등), ‘에’로 나타나는 어휘들은 원래가 ‘이’였다(예: 네(煙)-너, 데가리(頭)-더골, 제(灰)-지  
 회 등).

제2음절에서는 ‘애’와 ‘에’가 혼동되어 나타난다(예: 고래-고래·고래, 부채-푼채·푼채 등).  
 이것은 이 두 모음 위치가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년층에서는 구분하여 쓰고 있으나 청소년층에서는 그 사잇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짙다.

대(竹, <대) : 데(代, <디)  
 때(時, <때) : 때(垢, <뻘)  
 배(繩, <바) : 배(船, <비)  
 새다(曙, 새다) : 세다(漏, <식다)  
 해(多, 해) : 헤(日, <히)

전설모음 ‘ㅞ>ㅟ’로의 변화는 후설모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곧 후설  
 모음에서 ‘. >ㅓ’(예로 ‘늬>눔’(他)의 변화를 들 수 있다.)로 변한 것처럼 전설모음도 ‘ㅞ>ㅟ’  
 로 변화하여 구조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제주어의 복모음으로는,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가 있다. ‘ㅠ’가 없고 ‘ㅡ’가  
 있다.

3) /외>웨/

이 ‘웨’는 표준어에서는 ‘외’(단모음, [ø])이다. 그러나 제주어에서는 항상 복모음 ‘웨’[we]로  
 실현된다. 이 변화는 어느 경우나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어표기법>에서도 “ㅠ는 이중모음  
 ‘웨’로 소리 나서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웨’로 적는다.”라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예  
 를 들고 있다.

웨기(魚·肉)	웨한(怪漢)	네웨(內外)	웨물(賂物)
웨염(腦炎)	웨(升)	웨(牛)	웨(鐵)
웨가(外家)	웨(罪)	웨소(最小)	웨직(退職)

회의(會議)      웨다(爲)

4) /으/

이 이중모음은 《훈민정음》 ‘합자해’의 “· 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ㅣ’ 모음에서 일어나는 ‘·’나 ‘ㅡ’는 국어에는 없고 아동의 말이나 변방의 언어에 혹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음이다. ‘ㅣ’ 모음에서 일어나는 ‘·’는 곧 ‘ㅣ’와 ‘으’의 합음(ㅣ+으)은 변방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방이 곧 제주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쌍아래아(으) 또한 제주도에에서만 쓰는 모음으로 <제주어표기법>에서도 “는 ㅅ나 ㅈ, ㅋ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로 적는다.”라 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으든	으망지다
으뚱	욕다(*)
으삿	욕삭다(*)
웃세(*)	욕욕훤다(*)
윽가슴(*)	욘다(*)

이밖에도 ‘으끄다(엮다), 으남은(여남은), 으드레(여드레), 으라(여러), 으보록스보록(남상남상), 으름(여름), 으물(여물), 을다(열다), 욘치웃다(\*염치없다)’ 어휘에서도 확인되는데, 첫음절이라는 제약 조건이 붙는다. 물론, 이 조건에서 벗어난 ‘ㄹ롭다’(\*가럽다)는 어휘도 있다. <사진 k1008 훈민정음③>

### Ⅲ. 형 태

#### 1. 낱말 만들기

낱말 만들기는 접사에 의한 파생법과 실질 형태소의 결합에 의한 합성법이 있다.

##### 1) 파생어

파생접사에 의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파생법이라 하고, 이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 한다. 파생어는 접두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와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개 접두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는 오로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만 할 뿐, 일부 접미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새로운 단어처럼 품사를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다.

##### (1) 접두파생어

앞에 붙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이다.

- ㉠ 강-: 강추위
- 개-: 개비눗(개비름)

불-: 불더위  
왕-: 왕돌 왕재열(왕매미)

㉠ 굴룬+소리(군소리)

덜-: 덜익다(테익다)  
즌+베설(잔베설)  
출+떡(찰떡)  
즌+혹(찰혹)  
심방+말촉(방아깨비) <사진 k2009 심방말촉>  
웨+살다(되살다)  
몰+게염지(말개미)

㉡ 갈-: 갈집뽕이(갈집방이), 갈중의(갈중의)

겁-: 겁비(갑작스레 내리 쏟아지는 비)  
난-: 난드르(난들), 난캐(난들)  
돛-: 돛자라(검은 자라), 돛거미(왕거미)  
도-: 도나다(곡식을 거두고 난 뒤에 씨가 떨어져 저절로 나다), 도치다(찬밥 따위를 도로 찌거나 데우다)  
똥-: 똥강이(먹을 수 없는, 등딱지가 물렁물렁한 게)  
생이-: 생이벨망(배무래기)  
아끈-: 아끈천(작은천), 아끈취기(아츠조금), 아끈다랑쉬 <사진 k1010 아끈다랑쉬>  
장-: 장평(장끼)  
먹-: 먹돌(아주 단단하고 미끈한 검은 돌) <사진 k2011 먹돌>  
땅-: 땅개

㉢ 말젧-: 말젧누이(셋째 누이), 말젧상제(셋째 상주)

셋-: 셋딸(둘째딸), 셋아덜(둘째아들)  
다슴-: 다슴딸(의붓딸), 다슴아덜(의붓아들)

㉠은 표준어와 동일한 접두사, ㉡은 뜻은 표준어 접두사와 같고 발음형이 다른 경우, ㉢은 제주어에서만 쓰이는 접두사, ㉣은 특정 어휘와 연결되는 특이 접두사다.

㉠의 ‘강-’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심한’의 뜻을, ‘개-’는 ‘야생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의 뜻으로, ‘불-’은 ‘몹시 심한’이란 뜻을, ‘왕-’은 ‘보다 큰 종류’라는 뜻으로 표준어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유의 접미사로는 ‘건-’(건트집) ‘군-’(군내) ‘늦-’(늦더위) ‘덜-’(덜너) ‘돌-’(돌가시냥) ‘민-’(민오름) 등이 있다.

㉡의 ‘곤-, 굴룬-, 덜-, 즌-, 출(춘)-, 웨-, 몰-, 이른-, 모힌-, 흐린-’ 따위는 각각 ‘훤-, 군-데-, 잔-, 찰-, 되-, 말-, 올-, 메-, 차-’에 해당한다. 한편 ㉢은 제주어에서만 쓰이는 접두사로 각각의 형태는 ‘갈-: ㉠떡갈나무의 즈를 먹인, ㉡감물을 드린, 겁-: 갑자기, 난-: 앞쪽으로 나간, 돛-: 색깔이 검은, 도-: 다시 난, 또, 똥-: 먹을 수 없는, 생이-: 크기 작은, 아끈-: 규모가 작은, 장-: 수컷의, 먹-: 색깔이 검은, 땅-: 키가 작은’이라는 뜻이다.

‘갈-’은 대개 ‘감물’ 곧 ‘재래종 감을 뺀아 얻은 즈’으로 알고 있다. ‘갈물’은 떡갈나무의 잎

과 뿌리에서 얻은 물감을 말하는데 실로 만든 낚시줄이나 옷 따위에 물들이 사용하였다. ‘겁-’은 ‘무서워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怯)과 관련이 있고, ‘난-’은 ‘나다’(進, 出), ‘돛’은 ‘돼지’(豚), ‘도-’은 ‘돌다’(回), ‘똥-’은 ‘똥’(屎), ‘생이-’는 ‘새’(鳥), ‘먹-’은 ‘먹’(墨), ‘땅-’은 ‘땅’(地)과 관련이 깊다. 일부의 접두사는 어휘에서 온 것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㉞은 가족과 관련된 접두사로 ‘말젯-’은 달리 ‘말жат-’이라고도 하는데,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말 앞에 붙어서, 셋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를, ‘셋-’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말 앞에 붙어서, 둘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를, ‘다슴-’은 가족을 나타내는 말 앞에 붙어서, ‘의부(義父)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 (2) 접미파생어

뒤에 붙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이다.

㉟ -거리: 먹거리(먹거리)

-군: 간교군(간교군)

-나기(내기): 곱을내기(숨바꼭질)

-다리: 늑다리(늑다리)

-대기(테기): 손꼽대기(손의 낫춤말)

-바리: 악바리(악바리), 비바리(처녀)

-바치: 침바치(침쟁이)

-애기(아기): 빙애기(빙아리)

-애(에)다: 도왜다(도와주다), 덜래다(덜어내다)

㊱ -배기: 고른+배기(비긴 사람)

-암지: 목암지(모가지)

㊲ -뎡이(댕이): 꾀뎡이(꾸트머리), 병뎡이(뎡어리), 임뎡이(이마의 낫춤말), 남뎡이(줄기)

-생이(쟁이): 앞생이(앞사귀), 아우쟁이(아가미)

-쉬: 격대쉬(키다리), 역쉬(약동이), 귀막쉬(귀머거리)

㉟은 표준어와 같은 접미사, ㊱은 형태가 조금 다른 접미사, ㊲은 제주어에 나타나는 특이 접미사들이다.

㉟에서 접미사 ‘-나기(내기)’가 놀이를 의미할 때는 ‘-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곱을내기’를 ‘곱을락’이라고도 한다. ‘-바치’는 ‘-아치, -와치’로도 나타난다. ‘-애다’는 ‘없다→없애다’에서 발견되는데, 제주어에 있어서는 생산적으로 쓰인다. ‘똥다-도왜다, 덜다-덜래다’ 따위가 그것들이다. ㊱의 ‘고른배기’는 힘이 서로 같아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여 비기거나, 비긴 양쪽 사람을 뜻하는데, 달리 ‘고른배기, 골레기, 골래기’라고도 한다. 이는 중세 어휘 ‘꿘다’(竝)에 근원을 두고 있다. ㊲의 ‘뎡이, 뎡이’는 ‘뎡이’라는 명사와 관련이 깊다. 이 가운데 ‘임뎡이’는 ‘이마+뎡이’로 ‘이마’가 ‘임’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특이하다. ‘-쉬’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로 제주어에서는 생산적으로 쓰인다.

## 2) 합성어

합성어는 실질형태소와 실태형태소가 만나서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어근과 어근이 바로 연결되기도(가달춤, 가름돌다, 날보다 등) 하고, 어미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도(거심손, 들어가다, 갈라사다 등) 하고, 합성어를 형성한 다음 다시 파생어를 만들기도(골+밑다>골밑+이 등) 한다. 합성법이 중첩되어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아래 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알터진바지(개구멍바지)<강알+터지--+ㄴ 바지
- 짱뽕큰퀴기(뽕뜰이)<짱+뽕--+ㄴ 퀴기
- 그직아시날또아시날(어제 3일 전 날)<그직아시날 또 아시날
- 굽돋은접시(굽달이)<굽+돋--+은 접시
- 동뭇인것(꽃뭇이)<동+뭇--+인 것
- 툇싯은것(툇찌꺼기)<툇+싯--+은 것

### 가. 명사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용언과 명사가 연결되어 형성되기도 한다(㉡).

- ㉠ 가달춤(아이들이 고무줄놀이 등 여러 놀이에서 다리를 높이 쳐들며 뛰노는 일)<가달+춤
- 갈레죽(가래)<갈레+죽
- 배똥(배똥)<배+ㅅ+똥
- 갈비짱(갈비뼈)<갈비+짱
  
- ㉡ 검은유매물(털빛이 흑갈색인 말)<검--+은 유매물
- 간밤(지난밤)<가--+ㄴ 밤
- 거심손(아이들이 서로 손으로 건드리며 장난하는 짓)<거시--+ㅁ 손
- 결냥(말코지)<결--+ㄴ 냥
- 곤죽(흰죽)<곱--+ㄴ 죽
- 곱은자(곱자)<곱--+은 자
- 관췌(쉽게 부러지는 강한 쇠)<관--+ㄴ 췌
- 그실떡(그을음)<그시리--+ㄴ 떡
- 거스뽕(앞바람)<거스--+ㄴ 바람
- 거린작대기(작대기)<거리--+ㄴ 작대기
- 그차떡다(조금씩 끊어서 떡다)<긷+아 떡다
- 거느리왕상(떠도는 소문)<거느리--+왕상
- 나는물(생수)<나--+는 물
- 더께눈(거적눈)<더끄--+어 눈
- 들곰날곰(돈이 들어갈 일 따위)<들--+곰 날--+곰
- 이른콩(올콩)<이르--+ㄴ 콩

㉠의 경우는 바로 연결되는 게 특징이라면, ㉡은 관형사형, 명사형 어미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거느리왕상’처럼 용언의 어간 ‘거느리-’에 ‘왕상’(소문)이라는 명사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나. 동사

동사는 ‘명사+용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용언+동사’로 이루어진 경우(㉡), ‘부사+동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각 어휘의 ‘<’ 표 오른쪽을 보면 구성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 ㉠ 가름돌다(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 못하고 동네(洞內)에 나돌아 다니다)<가름+돌다  
 각뜨다(각뜨다)<각+뜨다  
 간가르다(간막이하다)<간+가르다  
 감장돌다(멤돌다)<감장+돌다  
 감저싱그다(고구마의 기는줄기를 땅 속에 묻어 심다)<감저+싱그다  
 날보다(택일하다)<날+보다

- ㉡ 가져가다(가져가다)<가지--+어 가다  
 갈라사다(갈라서다)<가르--+아 사다  
 갈라폴다(조아팔다)<고르--+아 폴다  
 거더설르다(걸어치우다)<걸--+어 설르다  
 고쩌사다(난처한 경우 그 자리를 피하다)<고쩌--+어 사다  
 기여나다(아내가 살림살이를 가르고 집을 나가다)<기--+어 나다  
 기여들다(편편하지 못하고 우뚝하게 안으로 들어가다)<기--+어 들다  
 ㄹ느삭다(배리배리하다)<ㄹ늘--+삭다  
 ㄹ려들다(옆에서 앞질러 끼어들다)<ㄹ리--+어 들다  
 나먹다(객지로 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지내다)<나--+먹다  
 내널다(빨래 따위를 집안에서 내어서 널다)<나--+이 널다  
 내컸다(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미리 알려주다)<나--+이 컸다

- ㉢ 가로가다(따로따로 갈리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로+가다  
 가로치지다(분량이나 수효가 많은 것을 몇 개로 나누다)<가로+치지다  
 고정들다(곧이들다)<고정+들다  
 고초들르다(곧추들다)<고초+들르다

다. 형용사

합성법에 의한 형용사 형성은 그리 많지가 않다.

- ㉠ 곱웃다(분별 없다)<곱+웃다
- ㉡ 퍼렁ㅎ다(퍼렁다)<퍼렁--+ㅎ다  
 노랑ㅎ다(노랗다)<노랗--+ㅎ다  
 거멍ㅎ(거멧다)<거멧--+ㅎ다



㉔ 거딱웃다(끄떡없다)<거딱+웃다

㉑은 분별력을 뜻하는 명사 ‘굽’에 형용사 ‘웃다’가 연결되어 형성된 형용사이고, ㉒은 제주어의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로 ‘퍼렇다 노랑다 거멍다’ 대신에 ‘ㅎ다’가 연결되어 ‘퍼렇ㅎ다 노랑ㅎ다, 거멍ㅎ다’로 나타난다. ㉓은 ‘거딱’이라는 부사와 ‘웃다’라는 형용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형용사이다.

라. 부사

주로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다.

㉑ 가명오명(갔다 왔다 하면서)

갈산절산(일이나 물건이 마구 뒤섞여 흩어진 모양)

㉒ 어랑어랑(나뭇잎이나 상추 따위가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

얼랑얼랑(아른아른)

## 2. 체언과 조사

체언이란 문장의 몸체가 되는 자리에 쓰이는 말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1) 명사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쓰는 이름이나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 쓰는 이름이나에 따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자립적으로 쓰이느냐 그 앞에 반드시 꾸미는 말인 관형어가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뉜다.

㉑ 아방(아버지)

어명(어머니)

사름(사람)

늪삐(무)

고녕이(고양이)

㉒ 관덕청 마당의 심어단 논 장독이다.(관덕정 마당에 잡아다 놓은 수탉이다.)

㉓-㉑ 먹을 걸랑 먹어사 ㅎ다.(먹을 것은 먹어야 한다.)

㉓-㉒ 경 뉘 중 알아시른 오지나 말걸.(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지나 말걸.)

㉓-㉒ 아직까지 살명 그 사름 거 받아본 베 웃다.(아직까지 살며 그 사람 것 받아본 바 없다.)

㉓-㉑ ㅎ루 이틀 사흘 나흘 닷췌 ㅎ췌 일췌 ㅎ드레 아흐레 열흘 ...보름 그믐

㉓-㉒ 정월 영등돌 삼월 스월 ...동짓돌 선돌

㉓-㉒ 금승 다간 사름 나름 ㅎ습 ...

㉓-㉒ 널 모리 글피 ...

㉓-㉒ 조금 혼물 두물 서물 ...

㉑은 보통명사이며 자립 명사를, ㉒은 주눅이 들어 찢찢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속담으로, ‘관덕청’은 제주시 중심부를 이루는 보물 제322호로 지정된 문화재 이름으로 고유 명사다. <사진 k1012 관덕청>

㉠의 ㉠ ‘떡을 걸랑’의 ‘거’, ㉡ ‘뉘 중’의 ‘중’, ㉢ ‘받아본 베’의 ‘베’는 각각 표준어 ‘것, 줄, 바’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들이다. ㉠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가끔 수사와 혼동하기도 하나 어엿한 명사의 자격을 갖는다. ㉠은 일수(日數), ㉡는 달수, ㉢는 짐승의 나이, ㉣는 날 이름 그리고 ㉤는 무수기의 이름이다.

참고로 표준어와 견주어 짐승의 나이, 햇수, 날 이름, 무수기를 표준어와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짐승의 나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소	금승	다간	사릅	나릅	다습	으습	일곱	으답	아홉	열
말	금승마	이수매	삼수매	스수매	오수매	육수매	칠수매	팔수매	구수매	십수매
표준어	하릅 한습	두습 이듭	사릅	나릅	다습	여습	이릅	여듭	아습 구릅	열릅 답불

• 햇수

그끄러께(재제작년): 그록크르헤, 그르크르헤  
 그러께(제작년, 지지난해): 재작년, 그르헤, 상그르헤, 장그르헤  
 올해: 올히, 올이, 올헤  
 내년(명년, 후년, 새해, 다음해, 이듬해): 네년, 멩년, 후년, 새해  
 내후년(명후년): 네후년, 우멩년

• 날 이름

( ): 그끄직아시날, 그직아시날또아시날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그끄지께  
 그저께: 그지께  
 어제(어제께): 어제, 어저끼, 아시날  
 오늘: 오늘, 오닐, 오늘  
 내일: 널, 널, 네일  
 모래: 모리  
 글피: 글피  
 그글피: 글피뉘날, 제녁날, 즈낙날, 저녁날  
 (※제주어 ‘그끄직아시날’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없는 것 같다.)

• 무수기

기간(음력)	제 주 어	표 준 어
1 / 16	일곱물	일곱무날, 일곱물
2 / 17	으답물	여덟무날, 여덟물
3 / 18	아홉물	아홉무날, 아홉물
4 / 19	열물	열무날, 열물
5 / 20	열흔물	열한무날, 열한물, 한것기
6 / 21	열두물	열두무날, 열두물, 대것기
7 / 22	아끈췌기	(아츠조금)
8 / 23	췌기, 한췌기	(조금)
9 / 24	(흔물)	(무쉬) (한무날,한물)
10 / 25	흔물	한무날, 한물
11 / 26	두물	두무날, 두물
12 / 27	서물	서무날, 서물
13 / 28	너물	너무날, 너물
14 / 29	다섯물	다섯무날, 다섯물
15 / 30	으섯물	여섯무날, 여섯물

명사의 복수는 복수화 접미사 ‘-덜, -이(의), -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너네덜이라도 강 도왜 주라.(너희들이라도 가서 도와 주어라.)
- 너네 집가?(너희 집인가?)

2) 대명사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거나 가리키는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와 사물이나 처소 따위를 이르는 지시대명사가 있다.

(1)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인칭: 나 내 우리
- 2인칭: 너 느  
이넉 지넉
- 3인칭: 일미 클미 절미  
야의(야이) 가의(가이) 자의(자이)
- 부정칭: 아모 아무 아무개 아무가이
- 미지칭: 누게 누괴 누구
- 재귀칭: 지 즈기

각 인칭대명사에 따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 **나가** 가든 빌려 줄 거여.(내가 가면 빌려 줄 거야.)
- ㉡ **내** 뭐엔 골아니, 갈지 말렌 아녀냐?(내 뭐라고 말했니, 가지 말라고 앓았니?)
- ㉢ 그 걸랑 **나** 드라.(그것이랑 나에게 다오.)
- ㉣ **우리** 모다들영 도와주어사 홀 거여.(우리가 모여들어 도와주어야 할 거야.)

㉠-㉠~㉣의 ‘나, 내, 나,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이르는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표준어와 다를 바 없다. “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우다.”처럼 ‘우리 집사람’의 ‘우리’도 문장에 따라 단수로 쓰이기도 한다.

- ㉤-㉠ 이제랑 **느** 알앙 흐라.(이제랑 너 알아서 하거라.)
- ㉡ 이 말 **이녁** ㄹ라 곶은 말은 아닌디, 오해랑 말게.(이 말 너한테 말한 말은 아닌데, 오해랑 말게.)
- ㉢ 계난 절단 내운 게 **지녁**이라.(그러니까 결판 낸 건 이녁이다.)

㉤-㉠~㉢는 듣는 사람을 이르는 인칭대명사들로, ㉠ ‘느’는 표준어 ‘너’에 해당한다. ㉡의 ‘이녁’은 사전식으로 풀이하면 ‘듣는 이를 조금 낮추어 이르는’ 2인칭대명사로, 관형사 ‘이’와 쪽이나 방향을 뜻하는 ‘녁’이 합하여 형성된 대명사이다. 마찬가지로 ㉢의 ‘지녁’도 관형사 ‘저’에 해당하는 제주어 ‘지’와 ‘녁’의 구성이다.

- ㉣-㉠ 계난 **야의**가 경 곶아냐?(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냐?)
- ㉡ **가의** 집의 강 보게.(그 아이 집에 가 보자.)
- ㉢ 암만 웨도 **자원** 못 들을 거여.(아무리 외쳐도 저 아이는 못 들을 거야.)
- ㉣ 경 곶악곶악허던 사름이 **일미**라.(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하던 사람이 이이라.)
- ㉤ 어떻게 하느냐, **글미**도 오렌 흐라게.(어떻게 하느냐, 그이도 오라고 해라.)
- ㉥ **절미**신디 한번 부탁허여 봐.(저이한테 한번 부탁해 봐.)

㉣-㉠~㉥의 ‘야의, 가의, 자의, 일미, 글미, 절미’는 3인칭대명사들이다. ㉠의 ‘야의’는 ‘이 아이’, ㉡의 ‘가의’는 ‘그 아이’, ㉢ ‘자원’의 ‘자의’는 ‘저 아이’의 줄임말들이다. ㉣의 ‘일미’, ㉤의 ‘글미’, ㉥의 ‘절미’은 각각 ‘이+르+미, 그+르+미, 저+르+미’로 분석되는데, ‘미’는 ‘어미(母), 새미(농악에서, 중으로 꾸미고 춤을 추는 사람), 그미(주로 소설에서, ‘그녀’를 멋스럽게 이르는.), 오무래미(이가 다 빠진 입으로 늘 오물거리는 늙은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중노미(음식점, 여관 따위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남자.)라든가, 제주어 ‘소미’(쉬운 곳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얇은 기능의 떨어지는 무당) 등에 보이는 ‘미’가 아닌가 한다.

- ㉦-㉠ **아무나** 오라도 좋다.(아무나 와도 좋다.)
- ㉡ 몰라시몬 **아무가이안티** 강 들어보라.(모르고 있다면 아무개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 ㉢ 계난 **아무개** 경 곶아냐?(그러니까 아무개가 그렇게 말하더냐?)
- ㉣ **누겐** 좋키여.(누구는 좋겠네.)
- ㉤-㉠ 계난 그 사름이 **지**라나서.(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였나.)

㉞ 그 사람은 **즈기** 말만 **즈기** 말이엔 **몰아**.(그 사람은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말해.)

㉟-㉠~㉡의 ‘아무, 아무가이, 아무개’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을 때 쓰이는 부정칭 대명사이고, ㉢ ‘누젠’의 ‘누게’는 가리키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따위를 알지 못할 때 쓰이는 인칭대명사로 미지칭이다. ㉣-㉠~㉡의 ‘지, 즈기’는 재귀층으로, 주어가 되풀이됨을 피할 때 쓰이는 인칭대명사이다.

## (2)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사물(장소): 이것(이거) 그것(그거) 저것(저거)  
                  이디 그디 저디
- 미지: 무신거 어느거  
          어디
- 부정: 아무(거) 아모(거)  
          아무(되) 아모(되)

지시대명사가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㉟-㉠ **이건** 먹어도 될 거 아닌가.(이것은 먹어도 될 게 아닌가?)
  - ㉞ 더 못 찾거랑 **그거**라도 으정 오라.(더 못 찾거든 그거라도 갖고 오너라.)
  - ㉡ **저걸**랑 그되 ㄴ만히 내볼라.(저것이랑 거기 가만히 내버려라.)
  - ㉣ 느랑 **이디** 시라.(너랑 여기 있어라.)
  - ㉠ **그디** 사람 시수가?(거기 사람 있습니까?)
  - ㉣ **저디서** 말 줄암서라.(저기서 말하고 있더라.)
- ㉡-㉠ 오늘날은 **무시거** 배와시니.(오늘은 무엇 배웠니.)
  - ㉞ **무시걸** 경 하영 가져 와서니.(무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니.)
  - ㉣ **어디** 강 완수과?(어데 갔다가 오십니까?)
- ㉣-㉠ **아모거나** ㄴ져도 좋다.(아무 것이나 가져도 좋다.)
  - ㉞ **아무** 돈이난 어떻흐냐?(아무 돈이니까 어떠하냐?)
  - ㉣ **아모되** 곱져실 거여.(아무데 숨겼을 거야.)

㉟-㉠ ‘이건’의 ‘이거’, ㉞의 ‘그거’, ㉡ ‘저걸’의 ‘저거’, 그리고 ㉡-㉠의 ‘무시거’와 ㉞ ‘무시걸’의 ‘무시거’, ㉣-㉠의 ‘아모’, ㉞의 ‘아무’는 사물을 표시하는 지시대명사를 말한다. ㉟-㉠, ㉞, ㉡는 ‘관형사+명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물건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 ㉞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이고, ㉣-㉠, ㉞는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지 않을 때 쓰인다. 한편, ㉟-㉣의 ‘이디’, ㉠의 ‘그디’, ㉣의 ‘저디’, ㉡-㉢의 ‘어디’, ㉣-㉣의 ‘아모’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들이다. ㉟-㉣, ㉠, ㉣, ㉞는 ‘관형사+명사’의 합성으로 구성되었고, ㉡-㉢는 알지 못하는 장소, ㉣-㉣는 일정하게 정해진 곳이 아니라는 부정의 뜻으로 쓰인다.

### 3) 수사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로, 수량을 표현하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 가. 양수사

사물의 수량을 셀 때 쓰는 수사를 말한다.

- ㉠ **하나**가 시든 **하나**가 웃꼭 **하나**가 많으면 **하나**가 덜웃꼭 허는 게 다 삶이여.(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하나가 많으면 하나가 덜하고 하는 게 다 삶이네.)
- ㉡ 잘 몰람시카부덴 **셋** 다음은 **넷**, **넷** 다음은 **다섯**, **다섯** 다음은 **으섯이엔** 곶아줘.(잘 모르고 있을까 봐 셋 다음은 넷, 넷 다음은 다섯, 다섯 다음은 여섯이라고 말해 줘.)

㉠,㉡의 ‘하나, 열, 셋, 넷, 다섯, 으섯’ 등이 양수사이다. ‘셋’을 달리 ‘짚, 셋’이라 하고, ‘넷’은 ‘너이, 넷’, ‘으섯’은 ‘으섯, 여섯’, ‘으답, 으듭, 으돌’, ‘아홉, 아홉’으로 쓰이기도 한다. 10단위는 ‘열, 수물(스물, 쭈물, 식물), 설흔(서른), 마흔(마은), 쉰, 예순(예쉰), 일은(일흔), 으든(여든) 아흔(아은)’이고, 100 이상은 한자어를 쓴다.

- ㉢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열**을 알까?(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열을 알까?)
- ㉣ 오늘 **열** 사람만 들양오른 일 다 **막끄키**여마는.(오늘 열 사람만 데려오면 일 다 마치겠는데.)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열’은 ㉢처럼 양수사로도 쓰이지만, ㉣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수관형사로 쓰인 경우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는데, 이때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수관형사라 한다.

‘흔, 두, 서(석), 너(늑, 녀), 다섯(닷, 대), 으섯(으스, 예), 일곱, 으답, 아홉, 열...’ 등이 수관형사로 쓰인다.

#### 나. 서수사

사물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는 표준어처럼 양수사에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째’가 붙듯 ‘-차’(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몇 개의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살명 **첫차**로 거긱말 말꼭, **둘차**는 부지런웃꼭 흐른 잘 살아진다.(살면서 첫째로 거긱말 말고, 둘째는 부지런하고 하면 잘 살게 된다.)
- ㉡ **셋차** 딸이라도 막 아깝나.(셋째 딸이라도 아주 아깝지.)

예문 ㉠의 ‘첫차’는 표준어처럼 ‘하나차’가 되지 않고 ‘첫차’가 된다.

### 4) 조사

조사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등 홀로 쓰이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를 말한다.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나뉘는데, 격조사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결정하

는 기능 곧 성분을 결정한다. 반면 특수조사는 보조조사, 보조사라고도 하는데 의미를 보강하는 기능을 한다.

(1) 격조사

체주어에 사용되는 격조사 일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주격: -이 /-가 /-서 - 라/-레
- 관형격: -의 /-네 /-으
- 대격: -을 /-를 /-르
- 보격: -이 /-가
- 서술격: -이다
- 호격: -아 /-야
- 부사격: -에 /-이 /-되 /-레 /-더레(처소), -으로 /-레 /-더레(향진), -의서(시발), -안티 /-아피 /-ㄱ라 /-신디(여격), -로(도구, 자격, 변성), -광 /-왕(비교, 공동), -처럼 /-만큼 /-보담(비교), -이영(공동), -엔(인용)

가. 주격

체언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격으로, ‘-이, -가, -서, -라, -레’ 등이 있다.

- ㉠ **출이** 성해도 밭 사름 엇언.(꽃이 성해도 밭 사람 없어.)
- ㉡ **물막쉬가** 밭 안트로 튀어들어 몬 먹어부러져.(말소들이 밭 안으로 뛰어들어 모두 먹어버렸어.)
- ㉢ **둘이서** ㄱ찌 췌 몰양 오라.(둘이가 같이 소 몰고 오너라.)
- ㉣ 이번 참도 우리 **마을에서** 도와사 훌건디.(이번 참에도 우리 마을이 도와야 할건데.)
- ㉤ **손지레** 서월 간덴 햅여라.(손자가 서울 간다고 하더라.)
- ㉥ **아시레** 이 집의 살암저.(아우가 이 집에 살고 있어.)

㉠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 쓰이는 주격 ‘-이’가, ㉡은 모음으로 다음에 쓰이는 주격 ‘-가’가, ㉢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이는 ‘-서’가, ㉣은 단체에 붙는 주격 ‘-에서’가, ㉤과 ㉥은 주격 ‘-레’가 쓰였다. 표준어의 존칭 주격 ‘-께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 표준어에 없는 주격으로 ‘-라, -레’가 있음이 특징이다.

나. 관형격

달리 속격이라고도 하는데,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격이다. 관형격 형태로는 ‘-의, -네’가 있다. 예문 ㉠의 ‘-의’와 ㉡의 ‘-네’가 관형격으로 쓰였다. 이 ‘-네’는 복수화 접미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은 ‘야의’ 다음에 관형격이 생략된 문장이다.

- ㉠ **집의** 밭은 어디?(그대의 밭은 어디니?)
- ㉡ **가네** 집장 보라, 거러먹을 물 시냐?(그 아이의 집에 가서 보, 떠먹을 물 있는가?)

㉔ **야의** 누의 님 시집가수다.(이 아이의 누님 시집갔습니다.)

다. 대격

달리 목적격이라고도 하는데,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격이다. 대격 형태에는 ‘-르, -을, -를’이 있는데 이는 표준어와 같다.

㉕ **날** 돌양 그릅서.(날 데리고 가십시오.)

㉖ 경 **소릴** 해도 부족하냐?(그렇게 노래를 해도 부족하냐?)

㉗ 밧 갈단 지친<sup>ㄷ</sup>라 **물을** 흘터 먹어.(밭 갈다가 지쳤는지 물을 마구 먹어.)

㉘ 부애난 지멍에 큰 물통에 간 **서답을** 해십주.(부아가 난 김에 큰 물통에 가서 빨래를 했지요.)

㉙ **부루** ㄷ ㄴ아단 먹제 보난 버랭이가 지각.(부루 뜯어다 먹으려고 보니 벌레가 가득.)

㉕의 ‘날’과 ㉖의 ‘소릴’에서는 ‘-르’이, ㉗의 ‘물을’과 ㉘의 ‘서답을’에서는 자음 명사 뒤에 오는 ‘-을’이, ㉙의 ‘부루’ 다음에는 대격이 생략되었다.

라. 보격

문장 안에서, 체언이 보어임을 표시하는 격으로, 주격 형태 ‘-이, -가’와 같은데 다만 서술어가 표준어처럼 ‘웨다, 아니다’에 한정된다. ㉚의 ‘웨가’이 ‘-가’, ㉛의 ‘늡신네가’의 ‘-가’가 보격이다.

㉚ 멀리서 봤주만은 분명 그건 우리집 **웨가** 아니라.(멀리서 봤지만 분명 그것은 우리 집 소가 아니야.)

㉛ 이빨 몬 떨어지난 거 **늡신네가** 웨여부는거.(이빨 다 빠지니 거 늡은이가 되어 버리는 거야.)

마. 서술격

문장 속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으로, 표준어와 같이 ‘-이다’가 있다. ㉜의 ‘-이여’가 서술격으로 사용된 것이며, ㉝의 ‘여’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㉜ 오늘 점심은 **떡이여**.(오늘 점심은 떡이다.)

㉝ 이건 우리 집 **웨여**.(이건 우리 집 소이다.)

바. 호격

문장 속에서, 체언이 부름의 자리에 놓이게 하여 독립어가 되게 하는 격이다. 호격 형태로 ‘-아, -야’가 있다. ㉞의 ‘-아’와 ㉟의 ‘-야’가 그것들이다.

㉞ 아이고, 이 **아방아**. 그 돈 들러강 놀음호든 어떻헛네깁.(아이고, 이 남편아. 그 돈 들러가 놀음하며 어떻게 합니까?)



㉔ **철수야**, 해 떨어저시메 집의 글라.(철수야, 해 떨어졌으니 집에 가자.)

사. 부사격

처소나 시간적, 공간적 범위 또는 지향점 따위를 나타내는 격으로, ‘-에, -이, -디(되), -레, -더레(-드레, -티레, -트레, -르레)’ 등의 형태가 있다.

- ㉕ 남은 거라도 **차룽착에** 담당 들렁 가게.(남은 것이라도 차룽에 담아서 들고 가자.)
- ㉖ 이거 **집아피** 싯길레 그냥 앓안 와수다.(이거 집앞에 싯길레 그냥 갖고 왔습니다.)
- ㉗ **집이** 싯거랑 내불라.(집에 있거든 내버려라.)
- ㉘ **솻디** 보라, 밥 시냐?(술에 보아라 밥 있는가?)
- ㉙ 그걸랑 **마리레** 놓아뒹 가라.(그것이랑 마루에 놓아 두고 가거라.)
- ㉚ 물 질어당 **물항더레** ㄹ득 채우라.(물 길어다가 물독에 가득 채워라.) <사진 k2013 물항>

㉕의 ‘-에’는 처소를 나타낸다. 그러나 ‘흐끔 쉼불에 채우라.(조금 쉼불에 구워라.)’에서는 ‘기구’를, ‘노름에 망헛주’(노름에 망헛지)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한다. ㉖,㉗은 ‘-이’가 처소를 나타내며,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의>이’ 발달을 알 수 있다.

㉘은 처격 ‘디(되)’가 연결된 것으로 몇몇 어휘하고만 연결되는데, ‘솻(鼎, 술)’을 비롯하여 ‘밭(田, 밭), 우(上, 위), 밋(低, 밑), 뒤(後), 갯꺾(갯가)’ 등이 이런 유에 속한다.

- **밧디** 글라 강 검질 메게.(밭에 가자, 가서 김 매자.)
- 넘어가단 보난 **냥 우티** 걸터아잔 신거라.(지나가다 보니 나무 위에 걸터앉아 있는거야.)
- **퀘두티** 곱지른 좃아저게 못 좃주.(퀘 뒤에 감추면 좃겠어 못 좃지.)
- 어멍 아방은 **깁이** 잡으레 **갯꺾디** 가수다.(어머니 아버지는 게 잡으러 갯가에 갔습니다.)

㉚은 처격 ‘-레’가 쓰인 경우인데 이 격 또한 몇몇 어휘하고만 연결되는데, ‘흐루(흐를, 一日), ㄹ루(ㄹ를, 粉), 화리(爐), 시리(甑), 찰리(袋)’ 등이다.

- 심이 장사난 **흐르레** 흘 일은 낫전이른 ㄹ까(힘이 장사니 하루에 할 일을 낫전이면 마쳐.)
- 이 **ㄹ르레** 물 더 비우라.(이 가루에 물 더 부어라.)
- 저 **정동화리레** 불살르라.(저 청동화로에 불사르라.)
- 이제랑 떡 칠 거난 **시리레** ㄹ를 담으라.(이제는 떡 찌 것이니 시루에 가루 담아라.)
- 이 **찰리레** 비우라 들렁 가게(이 자루에 부어라 들고 가게.)

한편 ㉘,㉚의 ‘-레, -더레’는 지향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는 대개 ‘오다, 가다’ 동사이거나 ‘글라, 그릅써’이다.

- 점심 먹어지걸랑 우리 **밧더레** 넘어 읍서.(점심 먹거든 우리 밭으로 건너 오십시오.)

- 마지막이난 죽은아방네 **집더레** 가봅주.(마지막이니 작은아버지네 집으로 갑시다.)
- 다 돌아와시메 저 **꽃더레** 그릅서.(다 돌아왔으니 저 숲으로 갑시다.)
- **이레** 읍서, 그레 갑서, **저레** 갑서 흐멍 날 놓앙 밀력동격 흐여.(이리 오십시오, 그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며 날 놓고 밀리고 당기고 해.)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출발, 시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지픈 **고지서** 오단 보난 오곳 어둑어부런.(깊은 숲에서 오다 보니 그만 어두워버렸어.)
- 나 **집의서** 옴이여.(나 집에서 오고 있어.)

조사 ‘-로’는 ㉠에서처럼 여러 기능으로 쓰이며, 어휘에서 발달한 여격(㉡)도 빈번하게 쓰인다.

- ㉠-㉠ **그건 자귀로** 가까산다.(그것은 자귀로 깎아야 해.)
- ㉡ **이번 참도 우시로** 갔다 와서.(이번에도 위요로 갔다 왔지.)
- ㉢ **춘물도 가두왕 오래 벳 맞후른 소곰으로** 벤흐여.(잔물도 가뒤 오래 별 맞추면 소금으로 변하지.)
- ㉡-㉠ **나신디** 주른 전해주주.(나한테 주면 전해주지.)
- ㉢ **아방ㄱ라랑** 곧지 맙서.(남편한테랑 말하지 마십시오..)
- ㉢ **나안티도** 잇저.(나한테도 있어.)
- ㉢ **먼저 성아피** 주어시라.(먼저 형한테 주었어라.)

㉠은 격 형태로 ‘-로’가 쓰였는데, ㉡는 ‘도구’를, ㉢는 ‘자격’을, ㉣는 ‘변함’을 나타낸다. 도구격은 달리 기구격 또는 조격이라고도 하는데, 문장에서 체언이 그 다음에 오는 용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기구가 됨을 보이는 격을 말하며, 자격격은 어떤 자격을 나타낸다.

㉣은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이 무엇을 받는 자리에 있음을 보이는 격으로, 여격이란 한다. 여격 형태로는 ‘-안티, -아피, -라, -신디’가 있다. 이 형태들은 원래 어휘 의미를 지니고 있던 실질형태소들인데 문법 요소로 변환 것이다.

- ㉤-㉠ **밥광 떡광** 어느 게 좋으니?(밥과 떡 어느 게 좋으나?)
- ㉢ **그 사람보담** 못허라 흐연 너 즈그못지 물어 공뷔흐여수다.(그 사람보다 못하라 해서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 ㉤-㉠ **가이영 나영** 이디서 놀앗져.(그 아이와 나와 여기서 놀았다.)
- ㉢ **나영** 버데 클라.(나하고 같이 가자.)

문장 ㉤은 둘 이상의 체언이 서로 같거나 다른 정도를 견줄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교’의 뜻을 나타내며, 문장 ㉢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다른 체언과 ‘함께’의 관계에 있음을 보인다. 그러니까 ㉤은 비교격으로 ‘-광, -보담’ 외로 ‘-츄록, -만큼’이 있고, ㉢은 공동격으로 ‘-광 왕’ 형태가 있다.

(2) 특수조사

달리 보조사라고도 한다. 격조사 문장에서 성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특수조사는 의미를 보장하는 기능을 지닌 조사를 말한다. 그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놈** 앞에서 **혼자만** 먹으른 췌 받나.(남 앞에서 혼자만 먹으면 죄 받는다.)
- ㉡ **늘랑** 이디 시른 좋키여.(너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 ㉢ **너부딴** 그것말은 허는디 나영 허지 말란 법은 엇지 아녀냐?(너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 ㉣ 오늘랑 **저디 ㄱ장** 메어뵤 가게.(오늘일랑 저기까지 메어두고 가자.)
- ㉤ 계난 **너아올라** 옥험이니.(그러니까 너마저 욕하는 거야.)
- ㉥ **물이나 밥이나** 그 날 잊치지 아년 혼 직 거려 놓으른 뵤다.(물이나 밥이나 그 날 잊지 않고 한 모금 떠 놓으면 뵤다.)
- ㉦ **돈이사** 시른 좋주.(돈이야 있으면 좋지.)
- ㉧ **떡이랑마랑** 밥도 못 얻어먹엇저.(떡은고사하고 밥도 못 얻어먹었다.)

㉠의 ‘-만’은 ‘단독’의 의미가, ㉡의 ‘-랑’은 ‘차이’ 또는 ‘주체’를 나타낸다. ㉢의 ‘-부땀’은 ‘시작’을 나타내는데 ‘-부땀’로 쓰이기도 하고, ㉣의 ‘-ㄱ장’은 ‘도급’의 뜻으로 ‘-ㄱ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장 ㉤의 ‘-아올라’는 ‘침가’의 뜻이나 달리 ‘종결’의 뜻으로도 쓰인다. 한편 문장 ㉥의 ‘-이나’는 ‘선택’을, ㉦의 ‘-이사’는 ‘특별함’을, ㉧의 ‘-이랑마랑’은 ‘고사’의 뜻을 지닌다. 표준어처럼 ‘-도’는 ‘동일’을, ‘-이라도/-인들’은 ‘또한 같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장에 따라 격이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는 표준어와 같다.

- ㉠ **그디** 사름 시어?(거기 사람 있어요?)
- ㉡ **밥** 먹영 가라.(밥 먹고 가거라.)
- ㉢ **느** 신은 켜 못 신으키여.(네 신은 커서 못 신겠다.)

㉠은 주격이, ㉡은 목적격이, ㉢은 관형격이 생략되었다.

### 3. 용언과 어미

용언이란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동사와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1) 동사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를 말한다.

- ㉠ 난 모리 **감져**.(나는 모래 간다.)
- ㉡ 갓당 오크매 잘 **살암시라**.(갔다 오겠으니 잘 살고 있어라.)
- ㉢ 유채꽃 노랑헝게 잘도 **피엇저**.(유채꽃 노랗게 잘도 피었다.)
- ㉣ 먼먼헝디서 온 사름이난 밥이라도 하영 **먹음서**.(멀디먼 데서 온 사람이니 밥이라도 많이 먹으십시오.)
- ㉤ 애기 울지 말게 젓 **멕이랴**.(아기가 울지 않게 젓도 먹여라.)
- ㉥ 애기 졸암시난, 저 애기구덕더레 슬헝게 **눅지랴**.(아기 졸고 있으니 저 애기구덕에

살짝 눌혀라.) <사진 k1014 얘기구덕>

㉨ 아방신디 **잡히른** 매 맞나, 혼저 돌아나라.(아버지한테 잡히면 매 맞나, 어서 달아나라.)

㉠은 구체적인 움직임,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은 움직임을 지닌 상태, ㉢은 자연 현상의 움직임, ㉣은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곧, 타동사를, ㉤과 ㉥은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사동사, ㉦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피동사이다.

## 2)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를 말한다. 대개 정상형용사, 지시형용사, 보조형용사로 나눈다. 정상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고프다, 곱닥하다, 별정하다, 반주롱하다), 지시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것(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보조형용사는 본용언에 연결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말한다.

- ㉧ 이 사탕대죽은 **들다**.(이 사탕수수는 달다.)
- ㉨ 작은아덜도 아방광 축어서 **ㄹ트다**.(작은아들도 아버지와 꼭 같다.)
- ㉢ 수정도 **하다**.(수도 많다.)
- ㉣ 우리 집의도 **짓저**.(우리 집에도 있다.)
- ㉤ 앞집 새각씨, 오늘사 보난 막 **곱다**.(앞집 색시, 오늘에야 보니 아주 곱다.)

㉧의 ‘들다’는 감각을, ㉨의 ‘ㄹ트다’는 비교를, ㉢의 ‘하다’는 수량을, ㉣의 ‘짓다’는 존재를, ㉤의 ‘곱다’는 시각을 각각 나타낸다.

- ㉥ 한복 입곡 머리호연 출리난 막 **곱다랴다**.(한복 입고 머리해 차리니 매우 곱다랴다.)
- ㉦ 이 췌줄은 너미 **ㄹ느롱하다**.(이 쇠줄은 너무 가느다랴다.)
- ㉧ 줍 멀린 생인ㄹ라 눈도 **별정호엿저**.(잠 설친 모양인지 눈도 별정다.)

㉥의 ‘곱다랴다’는 표준어 ‘곱다랴다’, ㉦의 ‘ㄹ느롱하다’는 표준어 ‘가느다랴다’에 해당한다. 이는 곧 표준어 ‘-다랴다’에 해당하는 접미사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곧 ‘곱다랴다’는 ‘곱닥하다’를 비롯하여 ‘곱들락하다, 곱드락하다’ 등으로 나타나고, ‘가르다랴다’는 ‘ㄹ느롱하다, ㄹ느롱하다, ㄹ노롱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곱다랴다’는 ‘흙지랑하다’로, ‘기다랴다’는 ‘진진하다’로, ‘줍다랴다’는 ‘줍작하다’로 나타나서 여러 형태로 대응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은 ‘별정다’가 ‘별정하다’로 나타나 제주어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는 모두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지시형용사로는 ‘기영하다, 영하다, 이영하다, 저영하다, 정하다, 어떻하다, 아미영하다’ 등이 있다.

- ㉠ 걸랑 **기영흡서**.(그걸랑 그러하십시오.)
- ㉡ **영호**는 사름 초담이우다.(이러한 사람 처음입니다.)
- ㉢ 저 사름은 오다가다 **저영호다**.(저 사람은 오다가다 저러한다.)
- ㉣ **어평호** 일이 이서도 이신 모양이여.(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는 모양이다.)
- ㉤ 간 **아미영호** 말도 못 들언 와수다.(가서 아무러한 말도 못 듣고 왔습니다.)

㉠의 ‘기영호다’는 ‘경호다’와 더불어 표준어 ‘그러하다’에 해당하고, ㉡의 ‘영호다’는 표준어 ‘이러하다’에 해당하는데, ‘이영호다’라 하기도 한다. ㉢의 ‘저영호다’는 ‘정호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표준어 ‘저러하다’에, ㉣의 ‘어평호다’는 ‘어떠하다’에, ㉤의 ‘아미영호다’는 ‘아무러하다’에 해당한다.

### 3) 보조 용언

본용언 뒤에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어휘적 의미는 물론 자립성마저 인정할 수 없는 용언을 말한다. 곧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 ㉠ 더운 밥 먹어 **가난** 땀이 짹짹.(더운밥 먹어 가니 땀이 줄줄.)
- ㉡ 그런 이왕은 나도 들어 나서.(그런 이야기는 나도 들었었다.)
- ㉢ 삼춘신디 강 말 쫓아 **뉘** 오라.(삼춘한테 가 말 전해 두고 오너라.)
- ㉣ 이 돌레떡 먹어 **볶서**.(이 도레떡 먹어 보십시오.)
- ㉤ 나만 다 먹어 **불엇주**.(나만 다 먹어 버렸지.)
- ㉥ 잠이나 실피 자구정 **호다**.(잠이나 실컷 자고 싶다.)

㉠의 ‘가다’는 ‘-어(아) 가다’의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고, ㉡의 ‘나다’는 ‘-어(아) 나다’의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의 ‘두다’는 ‘-어(아) 두다’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고, ㉣의 ‘보다’는 ‘-어(아) 보다’ 구성으로 쓰여서,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해봄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그러나 이 보조용언은 “4·3사건 땀 보지 않은 사름은 몰라.”처럼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래 살 당 보른 못 볼 일도 봐지메.”처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알양 보난 거짓말이 렌.”처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기도 하고, “곱닥호단 보난 들안 가켄 호는 사름이 하.”처럼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뒷말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의 ‘불다’는 표준어 ‘버리다’에 해당하는 보조용언으로 보통 ‘-어(아) 불다’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거나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의 ‘호다’는 표준어 ‘하다’에 해당하는 보조용언으로 ‘-게 하다’의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낼 때 쓰인다. “초약도 먹어사 흘 건디.”처럼 ‘-어사 호다’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냥으로 좃앙 먹젠 호난 어서라.”처럼 ‘-젠 호다’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의도하거나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다. “간혹 감도 흐주.”, “씬씬헝기도 흐주마는 먹어사 산다.”처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밖에 ‘웨다, 옷다, 말다, 오다, 잇다, 주다, 지다’ 등도 보조용언으로 쓰인다.

- 이제 먹게 **웨어** 감저.(이제 먹게 되어 가고 있어.)
- 밥 해 얏엉 **갓주**.(밥 해 가지고 갔지.)
- 경홀바에사 나 내영 **말주**.(그렇게 할 바에야 내 내고 말지.)
- 모녀 집의 **가시라**.(먼저 집에 가 있거라.)
- 이번이도 부락장 마타 **주어시른** 좋키여.(이번에도 부락장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 그거 몬 먹어 **지크냐?**(이것 전부 먹을 수 있니?)

#### 4) 어간과 어미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미와 연결되어 쓰일 때를 활용이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1) 어간

동사나 형용사인 용언이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한다.

- ㉠ 눈 질끈 **곰**얏 잠시라.(눈 질끈 감아 자고 있어라.)
- ㉡ 성이영 **꺄**찌 놀얏시라.(형과 같이 놀고 있어라.)

㉠의 ‘자다’ 어미 활용할 때 어간 모습이 변하지 않는 반면에 ㉡의 ‘놀다’는 ‘노니, 노니까 ...’ 등으로 그 어간의 ‘꺄’이 탈락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용언을 변칙용언이라고 하는데, 제주어에는 다음과 같은 변칙 용언이 있다.

- ㄹ변칙: 걸다, 놀다, 들다, 어질다
- ㄷ변칙: 견다, 곤다, 듣다, 듣다, 묻다, 일꾼다
- ㅂ변칙: 곱다, 곱다, 꺄롭다, 눅다, 무섭다, 밍다
- ㄹ변칙: 가르다/갈르다, 고르다/골르다, 다르다/달르다, 므르다/몰르다, 브르다/블르다, 부르다/불르다, 사르다/살르다, 시르다/실르다, 활다
- 으변칙: 가끄다, 가프다, 꺄트다/꺄뜨다, 나끄다, 노프다, 다끄다, 더프다/더끄다, 바트다/바뜨다, 부트다/부뜨다, 서끄다/서뜨다, 야트다/야뜨다

이 가운데 ‘가르다/갈르다, 고르다/골르다, 다르다/달르다, 므르다/몰르다, 브르다/블르다, 부르다/불르다, 사르다/살르다, 시르다/실르다, 꺄트다/꺄뜨다, 더프다/더끄다, 바트다/바뜨다, 부트다/부뜨다, 서끄다/서뜨다, 야트다/야뜨다’ 등은 어간이 둘 존재함이 특이한 현상이다.

각각 변칙 종류에 따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놀다: 놀고 놀지 놀믄 노니 노니까 논 놀네다 ...
- 견다: 견고 견지 걸으믄 걸으난 걸언 걸읍네다 ...

- 굽다: 굽고 굽지 구원 구우난 구우문 구워수다 ...
- 고르다: 고르고 고르지 골란 골람저 골랏수다 고릅서 ...  
골르고 골르지 골릅서 ...
- ㄱ뜨다: ㄱ뜨고 ㄱ뜨지 ㄱ탄 ㄱ탐저 ㄱ탐수다 ㄱ뜨키여 ...  
ㄱ뜨고 ㄱ뜨지 ㄱ탄 ㄱ탐저 ㄱ탐수다 ㄱ뜨키여 ...

제주어에 ‘ㅅ’변칙이 없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2) 어미

어간에 연결되어 활용하며 변하는 부분을 말한다. 어미에는 어말어미에 해당하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고, 어말어미에 앞선 어미인 선어말어미가 있다.

종결어미는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지니며, 연결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다음 말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전성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를 말한다.

### 가. 종결어미

문장을 끝나게 하는 기능을 지닌 어미로, 서술형·의문형·명령형·감탄형·칭유형(허락형·약속형) 등이 있는데, 그 어미 일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서술형 ㉠ -저, -ㄴ다, -나, -라, -네  
㉡ -서(어), -네, (ㄴ)께, -주, -메  
㉢ -ㄴ네다, -ㄴ테다, -수다
- 의문형 ㉠ -가(고), -ㄴ가(고), -냐, -네, -ㄴ다, -디아(디), -르레, -지, -코  
㉡ -르 로고, -라, -멘, -서, -안, -순  
㉢ -ㄴ네까, -ㄴ테가, -ㄴ테강, -수강, 수짜(과), -수가(까)
- 명령형 ㉠ -으라  
㉡ -여, -어, -심, -게  
㉢ -(으)버서, -십서
- 감탄형 ㉠ -네, -구나
- 칭유형 ㉠ -자, -게  
㉡ -주, -어  
㉢ -(으)버주

㉠,㉡,㉢는 각각 ‘허라체’, ‘허여체’, ‘홉서체’를 뜻한다. 감탄형 어미는 ‘허라체’만 가능하고, 의문형 어미 가운데 ‘허여체’의 ‘-순’과 명령형 어미 ‘허여체’의 ‘-심’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특징도 지닌다(문장에서의 사용은 문장 종결을 참고 바람.).

### 나. 연결어미

말 뜻 그대로 연결의 기능을 지닌 어미를 말한다. 연결할 때는 앞뒤가 대등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다.

먼저 대등하게 이어지는 경우를 보자.

- ㉠ 비 오당 바람 **불곡** 바람 불당 비 **오곡** 흠네다.(비 오다 바람 불고, 바람 불다 비 오고 합니다.)
- ㉡ 안터레 오라그네 밥 **떡영** 감서.(안으로 들어와서 밥 먹고 가십시오.)
- ㉢ 밥 **떡어네** 가수다.(밥 먹고 갔습니다.)
- ㉣ 절간에 간 불공도 **드리곡** 큰 심방 빌어단 곳도 **치곡** हे수다.(절간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큰 무당 빌려 곳도 하고 했습니다.)
- ㉤ 재수가 어시른 **데끼거니 맞거니** 혼다.(재수가 없으면 던지거니 맞거니 한다.)
- ㉥ 먼 올레로 아이가 **울명** 감서.(먼 골목으로 아이가 울면서 가고 있어.)
- ㉦ **놀명** 흐라.(놀면서 하여라.)

위 예문들은 연결어미에 의해서 나란하게 이어진 문장들이다. ㉠ ‘불곡’, ‘오곡’의 ‘-곡’, ㉡ ‘떡영’의 ‘-영’, ㉢ ‘떡어네’의 ‘-어네’, ㉣ ‘드리곡, 치곡’의 ‘-곡’ 등은 표준어 ‘-고’에 해당하는 어미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경우에 쓰인다. ㉠과 ㉢의 ‘-곡’은 ‘가곡 말곡, 곱곡말곡’처럼 ‘~곡말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데끼거니 맞거니’의 ‘-거니’는 표준어 ‘-거나’로, 대립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 ‘울명’의 ‘-명’과 ㉦ ‘놀명’의 ‘-명’은 표준어 ‘-면서’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명’은 ‘흐명말명, 좋으명말명, 고우명말명, 잘이명말명’ 따위에서는 ‘~명말명’으로 나타나 관용 표현을 이루기도 한다.

한편 연결어미는 다음과 같이 연결되기도 한다.

- ㉠-㉡ 사람은 **가면** 간 디 **므슴**이여.(사람은 가면 간 데 마음이네.)
  - ㉢ 사람은 **뻔** 잘 **먹어사** 산다.(사람은 끼니를 잘 먹어야 산다.)
  - ㉣ **흔** 직 **떡으난** 맛 시어라.(한 모금 먹으니 맛있더라.)
  - ㉤ **왁왁**하게 **어둑으나네** 혼찬 못 가키엔 생엄살을 떨었지.(감감하게 어두우니까 혼자 못 가겠다고 생엄살을 떨었지.)
- ㉡-㉢ 심들고 **케로운** **일이고대나** **춤** 살암시라.(힘들고 괴로운 일이더라도 참아 살고 있어라.)
  - ㉣ **경** **흔덜사** **박접** 흐라.(그렇게 한들 박접하라.)
  - ㉤ **오**날 **므까사** **홀** 거여.(오늘 마쳐야 할 거야.)
  - ㉥ **ㅎ**기사 **경**홀 거주.(하기야 그렇게 할 거지.)
- ㉢-㉣ 가켄 **ㅎ명** **가부**니 **홀** 수 셔.(가겠다고 하며 가버리니 할 수 있어.)
  - ㉣ **손**으로 **먹**는디 **복복** **치지명** **먹**어.(손으로 먹는데 박박 찢으며 먹어.)
  - ㉤ **가**더니 **돌**아올 **중**을 **몰**르더라.(가더니 돌아올 줄을 모르더라.)
  - ㉥ **느**가 **경** **ㅎ**였다니 어디 **믿**어지크냐?(너가 그렇게 했다니 어디 믿어 지겠니.)
  - ㉦ **가**키엔 **ㅎ**난 **가**렌 **굴**았주.(가겠다고 하니 가라고 말했지.)
  - ㉧ **죽**명 **ㅎ**난 **훤**걸음 **걸**어십주.(죽는다고 하니 바쁜 걸음 걸었지요.)
- ㉣-㉤ 밥 **떡**다그네 **훤**걸음을 **걸**언.(밥 먹다가 바쁜 걸음을 걸었어.)
  - ㉥ **가**단 **보**난 **놀**암서라.(가다 보니 놀고 있더라.)
  - ㉦ **해** **지**거니 **들** **튼**다.(해 지자마자 달 뜬다.)
  - ㉧ **계**난 **경** **ㅎ**도로기 **내**불어서.(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렸지.)



- ㉠ 벗광 술은 **오래다지** 좋아.(벗과 술은 오래수룩 좋지.)
- ㉡-㉢ 오름 막 노프덴 **흐명 안 가젠** **흐염저**.(오름 막 높다 하며 안 가려고 해.)
  - ㉢ 놀암시난 아무거나 **흐쟁** **홀거여**.(놀고 있으니 아무거나 하려고 할 거야.)
  - ㉣ 놀당 보른 **놀구정** **흔다**.(놀다 보면 놀려고 한다.)
- ㉤ **낭허레** 산테레 올르당 보른 **찾이 셔**.(나무하러 산으로 오르다 보면 성이 있어.)
- ㉥ **올락능력** **흐단** **보난** **헤 저** **부러저**.(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헤 저 버렸다.)

㉠의 ‘-든, -어사, -으난, -으나네’는 뒤에 오는 말의 내용을 제약하는 어미, ㉡의 ‘-이고대나, -ㄴ덜사, -아사, -기사’는 뒤에 말하는 사실을 구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어미, ㉢의 ‘-명, -더니, -니, -렌, -넝’은 설명이나 인용 따위를 나타내는 어미로, ㉣-㉤,㉥,㉦는 설명을, ㉣-㉥,㉦는 인용이다. ㉣의 ‘-다그네, -단’은 움직임이나 상태의 그침을 보이는 어미, ㉤의 ‘-거니’는 동작이 동시에 연이어 나타남을 나타내는 어미, ㉥의 ‘-도록기’는 어떠한 상태에까지 미침을 나타내는 어미, ㉦의 ‘-다지’는 어떤 일이 더해 감에 따라 다른 일도 같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어미, ㉡의 ‘-젠, -쟁, -구정’은 어떤 의도나 희망을 나타내는 어미, ㉤의 ‘-레’는 동작의 직접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그리고, ㉥의 ‘-락~력’은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어미들이다.

#### 다. 전성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 얼마 동안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를 말하는데, 명사형과 관형사 어미가 있다.

명사형 어미로는 ‘-(으)ㄴ, -기, -지’가 있다.

- ㉠ 이 약은 어떻 **먹지가** **굿다**.(이 약은 어떻게 먹기가 굿다.)
- ㉡ 잔치 때 입은 옷 **곱기가** **물색웃** **저레** **가라여**.(잔치 때 입은 옷 곱기가 색동웃 저리 가거라네.)
- ㉢ 우막우막 입 **노리명** **먹엄직이** **먹엄저**.(웁쑹웁쑹 입 놀리며 먹음직이 먹어.)

㉠의 ‘-지’, ㉡의 ‘-기’, ㉢의 ‘-ㄴ직’이 그것들이다. 한편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과 ‘-(으)ㄴ’ 있는데 표준어처럼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은 현재를, ㉡과 ㉢은 미래를 나타낸다.

- ㉠ **흐는** **둥** **마는** **둥** **일흐는** **게** **아니** **뉘서라**.(하는 둥 마는 둥 일하는 게 아니 되었다라.)
- ㉡ **갈** **듯** **갈** **듯** **흐명** **노시** **아니** **가라**.(갈 듯 갈 듯 하며 끝내 아니 가더라.)
- ㉢ **이젠** **갈** **테른** **가라** **흐는** **베짱인** **생이**라.(이제는 갈 테면 가거라 하는 베짱인 모양이야.)

㉠의 ‘-는’, ㉡의 ‘-ㄴ’, ㉢의 ‘-ㄴ’ 등이 그것들이다.

#### 라. 선어말어미

말 뜻 그대로 어말어미 앞에 놓인다는 특징을 지닌 어미다. 이 선어말어미는 시제, 서법,

양태, 높임 등을 나타낸다.

- ㉠-㉡ 즈녁을 **먹언** 조금 시난 와사리물 담아지듯 담아들어.(저녁 먹어서 조금 있으니 붓물 들어오듯 들어와.)
- ㉢ 밥 먹엄쿤텐 나도 먹으쿤텐 **흐명 상 앞더레 들어앗앗주**.(밥 먹고 있기에 나도 먹겠다고 하며 상 앞으로 들어앉았지.)
- ㉣ 그때사 이젠 **식상 다 되었구나** 영 생각흐어나십주.(그때야 이제는 세상 다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 ㉤ 어디 **감디**?(어디 가니?)
- ㉥-㉦ 마우다 **흐명 딱라가질 아년 난 살아나수다**.(싫다 하며 따라가지 않아서 나는 살았습니다.)
- ㉧ 하영 **먹읍데강**?(많이 먹었습니까?)
- ㉨-㉩ 자인 무신거 잘 **먹느니**?(저 아이는 무엇을 잘 먹느냐?)
- ㉪ 술 과히 좋아허지 안허주만은 주는 술잔은 잘 **받으네다**.(술 과하게 좋아하지 않지만은 주는 술잔을 잘 받습니다.)
- ㉫-㉬ 어제부뎌은 일어난 **밥도 먹어렌** 곶아라.(어제부터는 일어나 밥도 먹더라 말하더라.)
- ㉭ 강 보난 우리 강생이 **아니라라**.(가서 보니 우리 강아지 아니더라.)
- ㉮ 나도 강 받 **오과라**.(나도 가서 보고 왔노라.)
- ㉯-㉺ 난 이제 집의 **가키여**.(나는 이제 집에 가겠다.)
- ㉻ 곧 **갈 거난** 지들리지 말렌 **흐라**.(곧 갈 것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해라.)
- ㉼ 이 시간이면 집의 **다 가실 거여**.(이 시간이면 집에 다 갔을 거야.)

㉠의 ‘-언-, -앗-, -ㅁ-’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의 ‘-우-, -ㅁ-’은 경어법의 선어말어미, ㉨의 ‘-니-, -네-’는 화자가 그 이야기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함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의 ‘-어-, -라-, -과-’는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의 ‘-키-, 르 거-’는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들이다.

㉠-㉡,㉢,㉣의 ‘-언-, -앗-’은 과거, ㉠-㉤의 ‘-ㅁ-’은 현재를 나타낸다. ㉥-㉦의 ‘-우-’, ㉧의 ‘-ㅁ-’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은 직설법으로 ‘-ㄴ-, 느, 니, 네, 는-’ 등 다른 형태가 있다. ㉫은 회상으로, ‘-더-, -라-, -데-, -디-, -아-, -어-, -안-, -언-, -과-’ 등 다른 형태가 있다.

#### 4. 불변어

##### 1)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로, 조사도 붙지 않고 어미 활용도 하지 않는다.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성장관형사, 특정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관형사,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관형사가 있다.

- ㉠ **무신** 일흐연 돈 버실어신디 모르주만 **이젠 새** 집 짓영 **뎡뎡거리멍** 살아.(무슨 일해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 집 지어 뎡뎡거리며 살지.)

- ㉠ **똥** 사람은 모르주만 자네깍장 그디 간 말가?(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네까지 거기 갔단 말이나?)
- ㉡ 거 경혀도 **서** 말 특은 뉘거난 앗앙 가심.(거 그래도 서 말썸은 된 거니 갖고 가지.)

㉠의 ‘무신’(무슨, 피신)은 지시 관형사이고, ‘새’는 성상 관형사, ㉡의 ‘똥’(똥)은 지시 관형사, ㉢의 ‘서’는 수량 관형사이다. 이밖에도 자주 쓰이는 관형사로 ‘진진(긴긴), 벨아벨(별의 별), 하간·하근(여러), 느단(오른)’ 등이 있다.

특이한 관형사로 ‘서룬, 작산, 좋근· 좋건’ 등이 있는데, ‘사름, 어른, 애기, 어멍’ 등 사람을 뜻하는 어휘하고만 연결되는 특징도 지닌다.

## 2) 부사

동사, 형용사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뉜다.

### (1) 성분부사

특정한 성분을 제한하는 부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는 성상부사, 서술어의 모양을 한정하는 상태부사,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용언 또는 용언형이나 다른 부사의 정도를 한정하는 정도부사, 사물의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낸 상징부사, 최소나 시간을 가리켜 한정하거나 앞의 이야기에서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지시부사가 있다.

- ㉠ 말 맙서 **재우** 잤다 와수다.(말 마십시오, 겨우 잤다 왔습니다.)
- ㉡ 거슨샘은 물 **거스로** 흘르는 샘이렌 **흐**는 말.(거슨샘은 물 거꾸로 흐르는 샘이라 하는 말.)
- ㉢ **허루**에 **므창 거썸** 읍서.(하루에 마치어 얼른 오십시오.)
- ㉣ **그만** 잇당 **거령성이** **흔** 마디 **헝** 사름덜 **웃기주**.(가만 있다가 터무니없이 한 마디 해 사람들 웃기지.)
- ㉤ **흔** 마디 **흐난**에 **수시미악** **그냥** 기어들어부러.(한 마디 하니 무춤 그냥 기어들어.)
- ㉥ **흔** 사름은 **가당오당** 들리는 사름이곡, 또 **흔** 사름은 **간간무중**.(한 사람을 가다오다 들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리무중.)
- ㉦ **간** 보난 **막산**인 **쉐** 다리 **심언** **갈가리** **치지명** **먹엄서**.(가서 보니 막산이는 소의 다리 잡아 가리가리 찢으며 먹고 있어.)

㉠의 ‘재우’(겨우), ㉡의 ‘거스로’(거꾸로), ㉢의 ‘거썸’(얼른), ㉣의 ‘거령성이’(터무니없이), ㉤의 ‘수시미악’(무춤), ㉥의 ‘가당오당’(가다오다, 가끔), ㉦의 ‘갈가리’(가리가리)가 부사들이다. 특히 ㉥㉦은 첩어로 같은 형태가 반복되거나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기도 한다. 이런 부사류는 소리를 본뜨거나 모양을 본뜬 어휘가 많다.(여기에 대해서는 어휘 부분의 반복어 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시간부사로는 ‘막, 먼저·문처·먼저·문침·문처·모녀·모네(먼저), 궂사·궂세·아까(아까), 금방’ 따위가 있고, 지시부사로는 ‘그레(그리), 이레(이리), 저레(저리), 이디·이디·여기

(여기), 저되·저괴·저디(저기), 그되·거기·그디(거기), 어되·어디·어드(어디)' 등이 있다.

제주어에서 쓰는 특이한 성분부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굽엇이: 사물에 대한 분별 능력이 모자란 채로. 분별없이
- 도끈: 주어진 한보다 많게. 또는 가득
- 동고랭이: 빠짐없이 채비하여
- 멘들락: ①자그마한 물체가 턱지거나 울퉁불퉁한 데 없이 아주 동그스름하고 매끈한 모양 ②옷을 흘랑 벗은 모양
- 봉그랭이: 물체의 한 부분의 속이 아주 짝 차서 봉긋하게
- 옴막: 음식물 따위를 입안으로 들여 넣는 모양
- 와자자: 여러 색깔이 한데 어우러져 요란한 모양
- 자락: 갑자기 힘 있게 미는 모양
- 줄락: 오줌 따위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나오는 모양
- 주왓: 주먹 따위를 갑자기 내미는 모양
- 지깅: 짜인 물체나 담겨진 물건이 탄탄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
- 징끗: 줄이 걸리어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때의 느낌
- 축어시: 틀림없이. 꼭 들어맞게
- 화륙: 일이 매우 급한 모양
- 홀터: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그저 무슨 일을 연속적으로

## (2) 문장부사

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부사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와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부사로 나뉜다.

- ㉠ 아메도 난 집이 가사키여.(아무래도 나는 집에 가야겠어.)
- ㉡ **흐물며** 물도 칠팔촌 굴리는데 흐물며 사름사 말 곱을 거 시냐?(하물며 말도 7, 8촌 가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거 있니?)
- ㉢ 그 사름 **정말** 나쁜 사름이로고.(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 ㉣ **경혀도** 그런 말 곱는 거 아니여.(그래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 ㉤ **기영혀영** 잘 살앗덴 곱아.(그래서 잘 살았다고 말해.)
- ㉥ **계니** 돈 아니 줄 순 엇고, 경혀연 돈 쥐십수.(그러니 돈 아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돈 주어지요.)
- ㉦ **계난** 날그라 뉘시엔 곱아니?(그러니까 날더러 무어라고 말하더냐?)
- ㉧ **계건** 우리 버테 갑주.(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의 '아메도', ㉡의 '흐물며', ㉢의 '정말'은 양태부사를, ㉣의 '경혀도', ㉤의 '기영혀영', ㉥의 '계니'(계메·경혀니·기영혀니·그영혀니), ㉦의 '계난'(경혀난·기영혀난·기여난), ㉧의 '계건' 따위는 접속부사에 해당한다.

### 3) 감탄사

말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를 말한다. 슬픔이나 비웃음과 같은 감정, 입버릇 등이 포함된다. 감탄사는 그 자체만으로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말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문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 ㉠ **아이고** 말 말아, 흐끔 시난 탈 타먹은 하르방처록 말을 곶아가는디, 춤말 들엄직혀 여라.(아이고 말 말아, 조금 있으니 산딸기 따먹은 할아버지처럼 말을 해 가는데, 정말 들을 만하더라.)
- ㉡ **마**, 이거라도 마탕 먹어시라.(자, 이거라도 받아 먹어 있거라.)
- ㉢ **저**, 그디 사름 셔?(저, 거기 사람 있어?)

예문 ㉠의 ‘아이고’는 감정을, ㉡의 ‘마’는 손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로, 의지를, ㉢의 ‘저’는 입버릇을 나타낸다. 제주어의 주요 감탄사를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다.

- 그자춤: 너무도 어이없을 때 내는 소리
- 나아더리·네야더리(제기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는 말
- 매기독닥: 어린아이에게 빈 그릇 따위를 보이면서 아무 것도 없음을 알릴 때 쓰는 말
- 메·메께·메께라(어머):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
- 아따·으따·하따·옴다·으따가라(아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 아마평어리·어마평어리: 일이 잘못 되었을 때나 너무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내는 소리
- 아차불쌍(아뿔싸): 일이 잘못되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뉘우칠 때 가볍게 나오는 소리
- 어떠불라·아따불라·어따불라: 신체의 어느 부분이 뜨거운 물체에 접해서 또는 하기에 가까이 해서 갑자기 뜨거움을 느꼈을 적에 내는 소리
- 어마넉덜라·어마넉들라·아마넉덜라·아마넉들라(췌췌): 어린아이가 놀랐을 때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위로하는 말
- 잘관다리·잘관이(잘코사니): 미운 사람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길 때에 내는 소리
- 츠마·마가라: 남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는 소리
- 쿠쿠(췌췌): 어린애가 다쳐 아파할 때 다친 자리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는 소리
- 허췌·어치나·어취나(개치네췌): 재채기를 한 뒤에 내는 소리

## IV. 통사

### 1. 시간 표현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장치에 의하기도 하고, 어휘에 의하여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법적 장치는 어미에 의한 것이며, 어휘는 시간 부사, 접미사, 명사 등으로 표현된다.

시간은 대개 말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가, 말하는 순간과 같이 별

어지는 사건인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가 에 따라 각각 과거, 미래, 현재로 분류한다.

(1) 과거

말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ㄴ’과 ‘-ㅇ’이나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 ㉠ 떡도 하영 **먹**언 가수다.(떡도 많이 먹고 잤습니다.)
- ㉡ 선떡 **먹**은 간혹여 그냥 ㄱ만이 잊지.(선떡을 먹은 듯하여 그냥 가만히 있다.)
- ㉢ 밥도 **먹**었 이시라.(밥도 먹어서 있어라.)
- ㉣ 간 보난 **어**시웁다.(가 보니 없었습니다.)

㉠과 ㉡은 ‘-ㄴ’에 의해, ㉢은 ‘-ㅇ’에 의해 그리고, ㉣은 회상의 선어말어미 ‘-테-’에 의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미 ‘-ㄴ’과 ‘-ㅇ’은 사전적으로 풀이한다면 ‘-ㄴ’은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거나,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 -어, -여, -라’ 등에 연결되어 이미 지난 동작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다. 한편 ‘-ㅇ’은 어떤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 -어, -여, -라’에 연결되어 이미 지난 동작을 나타낸다.

(2) 현재

말하는 시점과 동시에 일어나 사건을 말한다. 관형사형 ‘-ㄴ’이나 ‘-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 형태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

- ㉠ 어디 **감**이니? 집의 **감**다.(어디 가니? 집에 간다.)
- ㉡ 집의 ㄹ전 **간** 보난 막 좋은 거라라.(집에 갔고 가 보니 아주 좋은 거더라.)
- ㉢ 가윈 가나오나 **말**썩인다.(그 아이는 가나오나 말썩이다.)

㉠은 어미 ‘-ㄱ-’에 의해서, ㉡은 관형사형 어미 ‘-ㄴ’에 의해서 그리고, ㉢은 ‘-ㄴ다’에 의해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어미 ‘-ㄱ-’은 체주어에서 특이한 존재로, 진행의 뜻을 지니고 있으면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ㄴ’은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는데, 예문 ㉡이 바로 그 경우이다.

(3) 미래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표현이다.

- ㉠ **갈**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일 도왜 줌이여.(갈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일 도와 주는 게 지.)
- ㉡ **강** 돌아똥 오라.(가서 말해두고 오너라.)
- ㉢ 개역 급히 **떡**당 말호른 ㄱ진다.(미숫가루 급히 먹다 말하면 목에 갑신다.)

㉠은 관형사형 어미 ‘-ㄴ’에 의해서, ㉡과 ㉢은 ‘-ㅇ’에 의해서 미래를 나타낸다. 관형사형

어미 ‘-르’은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의 일반적인 사실 또는 장차 할 동작을 나타내며, ㉠의 ‘-오’은 어떤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 -어, -여, -라’에 연결되어서 장차 할 동작을 나타낸다면, ㉡의 ‘-오’은 어말어미 ‘-데, -래, -제, -예, -게, -네, -니, -디, -고’ 등에 붙어서 다음에 오는 ‘하다, 말하다, 생각하다’ 등의 말에 연결되어 장차 할 일을 뜻한다.

#### (4) 어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접미사 등 어휘 요소로 표시되는 시간 표현을 말한다.

- ㉠ **모녀** 온 사람부엌 반을 받는 게 차례우다.(먼저 온 사람부터 반기 받는 게 차례입니다.)
- ㉡ **인척** 온 사람이나 느낌이 온 사람이나.(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 ㉢ 말 밥서, 덤뎨 **허명 여름내낭** 벗인 살아수다.(말 마십시오, 덤다 하면서 여름내 벗어서 살았습니다.)
- ㉣ **곶**은 데로 물 거러놓아십주, **글지후제** 꿈에 시꾸지 아넛뎨 **흡주**.(말한 대로 물 떠놓았지요, 그 후에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그직아시날** 오란 가실 거라.(그쪄저께 왔다가 갔을 거야.)

㉠과 ㉡의 ‘모녀, 인척’은 시간 부사로, ㉢은 접미사 ‘-내낭’으로, ㉣은 ‘글지후제’라는 특이한 구조에 의해, ㉤도 ‘아시’라는 어휘를 붙여 순서를 나타냄으로써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의 ‘-내낭’은 표준어 ‘-내’로, 시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을 더하거나, 때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연결되어서 ‘그때까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은 ‘글지후제, 글르후제, 그르후제’ 등으로 나타나 ‘그+(르)+지+후(後)+제(時)’ 구성을 보여준다. ㉤의 ‘그직아시날’은 ‘그쪄저께’의 제주어인데 ‘어제 전전 날’인 ‘그쪄저께’를 말한다. 그렇다면 ‘어제 전전전 날’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그직아시날또아시날’로, ‘또아시날’이라는 날짜를 나타내는 어휘를 중첩하므로 ‘어제 전전전 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2. 동작 표현

동사가 가지는 동작의 양태(樣態), 특질 따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대개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동사의 결합에 의해 표시되며, 간혹 연결어미에 의해서 표시될 수도 있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 따위가 있다.

### 1) 완료상

일이 끝나서 그 결과가 지속되는 의미를 표시하는데, ‘-아시, 어시-’ 또는 ‘-앗, 엇-’으로 나타난다. 표준어에서는 ‘-아(어) 있-’으로 표시된다.

- ㉠ 하루 해천 **숯아시난** 이제 몬 익었저.(하루 해전 삶았으니 이제는 전부 익었지.)
- ㉡ 난 밥 하영 **떡었저**.(나는 밥 많이 먹었지.)
- ㉢ 이제사 **오랏구나**.(이제야 왔구나.)
- ㉣ 일 다 **허여신가?**(일 다 했는가?)

㉔ 다 먹어신가?(다 먹었는가?)

㉑은 ‘-아시-’와 ‘-엇-’에 의해서 이미 끝난 일임을 나타내고 있고, ㉒에서도 ‘-엇-’이, ㉓에서는 ‘-앗-’의 다른 형태인 ‘-랏-’에 의해서 이미 끝난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㉔과 ㉕에서는 ‘-어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아(어)시-’는 ‘-아(어)+ㅅ 시(有)-’ 구성으로, ‘-아(어) 시->-아(어)시->-앗(엇)-’ 과정으로 발달한 것이다.

2) 진행상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동작상으로 ‘-암시, 엄시-’ 또는 ‘-암ㅅ, 엄ㅅ’로 나타낸다. 표준어에서는 ‘-고 있-’으로 나타낸다.

- ㉑ 난 이디서 **지드렵시키여**.(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 ㉒ 저레 **감시키여**.(저리 가고 있겠다.)
- ㉓ 어디 **감시니?**(어디 가고 있니?)
- ㉔ 어디 **감수까?**(어디 가고 있습니까?)
- ㉕ 글 **익엄수다**.(글 읽고 있습니다.)

㉑,㉒,㉓은 ‘-암시-, -엄시-’에 의해서, ㉔과 ㉕은 ‘-암ㅅ-, -엄ㅅ-’에 의해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암시-, -엄시-’는 ‘-아(어)+ㅅ 시-’ 구성으로, ‘-아(어)+ㅅ 시->-암(엄)시->-암(엄)ㅅ-’으로 발달한 것이다.

3) 전망상

어느 기준점에서 상황이나 상태가 그렇게 전개될 것이나 동작이 예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상을 말한다. ‘-게 웨다, -게 하다’ 구성으로 나타낸다. 표준어 ‘-게 되다’, ‘-게 하다’에 해당한다.

- ㉑ 그디 강 **살게 웨엇주**.(거기 가 살게 되었지.)
- ㉒ 목 알려레 **넘어가게 웨믄** 살아나는 거여.(목 아래로 넘어가게 되면 살아나는 게지.)
- ㉓ 손지덜랑 잘 **떡게 하라**.(손자들은 잘 떡게 하거라.)

의미상으로 볼 때 ㉑은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으며, ㉒은 입안에 있어 목 아래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㉓은 손자들이 아직은 잘 떡지 못하고 있으나 장차 잘 떡게 할 것이라는 뜻으로, 앞으로의 일에 속한다.

3. 사동과 피동

1) 사동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하는 주동에 대하여,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지, -후’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동사에 의한 문장이 있는가 하면 ‘-게 하다’ 구성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 ㉠ 저 올레 삼촌이 물에 빠정 죽는 거 **살렸젠** 한다.(저 골목 삼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살렸다고 한다.)
- ㉡ 속 얼마나 **씩인** 중 알았디야?(속 얼마나 썩힌 줄 알고 있니?)
- ㉢ 물에 젖은 옷 **벗기젠** 허난 벗겨질거라.(물에 젖은 옷 벗기려고 하니 벗겨지겠어.)
- ㉣ 자는 아이 **깨우지** 말라.(자는 아이 깨우지 말아라.)
- ㉤ 서방 **언지젠** 노력한 거 잘 모를 거우다.(서방 언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잘 모를 겁니다.)
- ㉥ 돈 굳후언 집 사시네.(돈 굳혀 집 샀지.)
- ㉦ 산에 올령 풀 뜯어 **먹게** **허여똥** 왓저.(산에 올려 풀 뜯어먹게 해 두고 왔어.)

㉠의 ‘살리다’, ㉡의 ‘씩이다’, ㉢의 ‘벗기다’, ㉣의 깨우다, ㉤의 ‘언지다’ 등은 각각 ‘살다, 썩다, 벗다, 깨다, 언다’의 사동사들이다. ㉥의 ‘-지’는 제주어에서는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눅다-눅지다, 웃다-웃지다, 신다-신지다, 입다-입지다, 굶다-굶지다’ 등 아주 생산적으로 쓰인다. ㉥은 ‘굳다-굳후다’로 ‘-후’가 사동 접미사로 쓰이고 있음을 본다. 한편, ㉦은 ‘-게 허다’라는 보조동사에 의한 사동 구문이다.

## 2) 피동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행위로,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인 능동의 짝이 된다. 피동문 구성은 피동사에 의한 것과 ‘-어 지다, -게 뉘다’ 구성으로 만들어진다.

- ㉠ 잘못 허연 문트멍에 손이 **끼얏젠** 곱아라.(잘못 해서 문틈에 손이 끼었다고 말하더라.)
- ㉡ 귀창 터지게 **들리는** 건 ‘수박 삼서’ 허는 소리라.(귀창 터지게 들리는 건 ‘수박 사십시오’ 하는 소리라.)
- ㉢ 똥똥 허는 구급차에 **실려** 갓젠.(앵앵 하는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 ㉣ 경해도 먹다 보문 **먹어 지네**.(그래도 먹다 보면 먹어 지네.)
- ㉤ 질레서라도 **만나게 뉘결랑** 집더레 보내줘.(길에서라도 만나게 되거든 집으로 보내줘.)

㉠,㉡,㉢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으로, 각각 ‘끼다-끼이다, 듣다-들리다, 신다-실리다’가 짝을 이룬다. ㉣과 ㉤은 각각 ‘-어 지다’와 ‘-게 뉘다’ 구성에 의한 피동문이다. 특히 ㉣의 ‘-어 지다’는 제주어에서 즐겨 쓰는 구성이다.

## 4. 부정 표현

부정 표현은 문장으로써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 1) 단순 부정

단순하게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의지 부정이라고도 한다. 이 단순

부정 표현은 ‘아니다, 아녀다, 아니(안)’로 나타난다.

- ㉠ 이걸 우리 췌 **아니여**.(이것은 우리 소 아니다.)
- ㉡ 아직도 문 **안** 모였져./**모이지 아녜져**.(아직도 모두 안 모였네./모이지 않았네.)
- ㉢ 화북헌연 **낮도 안** 시천 돌려와서./**시치지 아녜** 돌려와서.(화북해서 낮도 아니 씻고 달려왔어./씻지 않고 달려왔어.)
- ㉣ 이 물색옷은 **아니** 곱다./**곱지 아녀다**.(이 색동옷 아니 곱다/곱지 않다.)
- ㉤ 이 옷은 **아니** 좋다./**좋지 아녀다**.(이 옷은 안 좋다./좋지 않다.)

㉠은 ‘그건 너네 췌가?’에 대한 대답으로 부정을 나타낸 것이며, ㉡과 ㉢은 동사 ‘모이다, 씻다’, ㉣과 ㉤은 형용사 ‘곱다, 좋다’를 부정하고 있다. 표준어처럼 ‘아니(안) 용언’의 구조와 ‘용언 어간+지 아니다(아녀다)’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 2) 능력 부정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못 용언’과 ‘용언 어간+지(들) 못허다’ 구성으로 나타난다.

- ㉠ 아직도 말 **못** 골았져./**골지 못헐져**.(아직도 말 모두 못 말했다./말하지 못했다.)
- ㉡ 옛날은 당호베끼 부르들 **못** 헐렸주./**못** 부러트주.(옛날에는 당호밖에 부르질 못했지./못 불렀지.)
- ㉢ 문 **못** 먹었져./**먹지 못헐져**.(전부 못 먹었지./먹지 못했지.)
- ㉣ 경 으망지지 **못허다**.(그렇게 똥똥하지 못하다.)

㉠,㉡,㉢은 동사 뒤에서 ‘못 용언’이나 ‘-지 못허다’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은 용언이 형용사로, 그 구성은 앞 예문과 같지만 그 의미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경 못 으망지다.”라는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 3) 금지

‘말다’에 의한 부정 표현은 금지를 나타낸다. ‘-지 말라’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을 표현한다.

- ㉠ 그되랑 올라사지 **말라**.(거기랑 올라서지 말아라.)
- ㉡ 경 용심내지 **말라**.(그렇게 화내지 말아라.)
- ㉢ 다 끝나시매 나사지 **말게**.(다 끝났으니 나서지 말자.)
- ㉣ 우리 각시신디랑 곁지 **말주**.(우리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자.)
- ㉤ 오늘 비 오지 **말아사** 흘건디.(오늘 비 오지 말아야 하는데.)

㉠,㉡은 명령문에서 쓰인 ‘말다’ 부정 표현이고, ㉢과 ㉣은 청유문에서 쓰인 ‘말다’ 부정 표현으로, 표준어처럼 청유문과 명령문만 가능하다. ㉤은 ‘기원’을 나타내고 있다.

## 5. 경어 표현

경어 표현이란 경어법의 다른 이름으로,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을 말한다.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으나 제주어에서는 주체 높임은 본디 없었으나 표준어 영향으로 선어말어미 ‘-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최근의 일이다.

반면 상대 높임은 어말어미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의 말의 등급으로 나타난다. 곧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 사이에 가정할 수 있는 단계는 ‘말하는 이<말 듣는 이’인 경우가 그 첫째이고, 둘째는 ‘말하는 이=말 듣는 이’, 마지막은 ‘말하는 이>말 듣는 이’ 세 가지다. 그 첫째가 ‘흡서체’, 둘째가 ‘호여체’, 셋째는 ‘호라체’가 된다.

### 1) 상대 높임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하여 상대방을 대우하는 문법적 장치를 말한다. ‘호라체’(㉠), ‘호여체’(㉡), ‘흡서체’(㉢)에 따른 높임법을 ‘먹다’의 예로 보자.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 ㉠-㉡ 밥 먹었저.(밥 먹었어.)
  - ㉡ 밥 먹나.(밥 먹지.)
  - ㉢ 밥 먹어라.(밥 먹더라.)
- ㉡-㉢ 밥 먹엄서.(밥 먹고 있네.)
  - ㉢ 밥 먹었주.(밥 먹었지.)
  - ㉣ 밥 먹언게.(밥 먹더라.)
- ㉢-㉣ 밥 먹엄수다.(밥 먹고 있습니다.)
  - ㉣ 밥 먹읍테다.(밥 먹었습니다.)
  - ㉤ 밥 먹읍네다.(밥 먹습니다.)

다음 의문문을 보자.

- ㉠-㉡ 밥 먹언가?(밥 먹었니?)
  - ㉡ 밥 먹어나?(밥 먹더냐?)
  - ㉢ 밥 먹었지?(밥 먹었지?)
- ㉡-㉢ 밥 먹으멘?(밥 먹니?)
  - ㉢ 밥 먹어서?(밥 먹었니?)
  - ㉣ 밥 먹었순?(밥 먹었니.)
- ㉢-㉣ 밥 먹엄수강?(밥 먹고 있습니까?)
  - ㉣ 밥 먹읍테강?(밥 먹었습니다?)
  - ㉤ 밥 먹읍네까?(밥 먹습니까?)

명령문은 다음과 같다.

- ㉠-㉡ 밥 먹으라.(밥 먹어라.)

- ㉠-㉠ 밥 먹어.(밥 먹어.)
- ㉡ 밥 먹게.(밥 먹게.)
- ㉢ 밥 먹으심.(밥 먹으심.)
- ㉣-㉠ 밥 먹읍서.(밥 먹으십시오.)
- ㉡ 밥 먹으십서.(밥 먹으십시오.)

감탄형은 다음과 같다.

- ㉠-㉠ 밥 먹네.(밥 먹네.)
- ㉡ 밥 먹는구나.(밥 먹는구나.)

청유형은 다음과 같다.

- ㉠-㉠ 밥 먹자.(밥 먹자.)
- ㉡ 밥 먹게.(밥 먹게.)
- ㉢-㉠ 밥 먹주.(밥 먹지.)
- ㉡ 밥 먹어.(밥 먹어.)
- ㉣-㉠ 밥 먹읍주.(밥 먹읍시다.)

한편, 침사에 의해서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 그디 사름 이신가, **마썸**.(거기 사람 있습니까요.)
- ㉡ 이거라도 먹읍십서, **예**.(이거라도 드시고 계십시오, 예)
- ㉢ 이땅 갑서, **양**.(이따 가십시오, 예)

## 2) 객체 높임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대접하여 표현하는 높임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어미 ‘-습-, -줍-, -습-’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높임말 곧, ‘보다’에 대한 ‘뵈다’, ‘주다’에 대한 ‘드리다’, ‘말하다’에 대한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어에서도 ‘주다’ 대신에 ‘안네다’, ‘말하다’ 대신에 ‘솔우다’를 써서 표현한다.

- ㉠ 큰하르바님신디 잘 **안네뵈** 오라.(큰할아버지한테 잘 드려 두고 오너라.)
- ㉡ 하르방신디 **솔화** 불켄 호난 그냥 수시미악 호여.(할아버지한테 아뢴다 하니 그냥 무춤 해.)

㉠의 ‘안네다’는 ‘주다’의 높임말이고, ㉡의 ‘솔루다’는 ‘말하다’의 높임말이다. ‘솔루다’는 중세 어휘 ‘솔다’(白)에서 온 어휘 ‘솔우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준어처럼 특별한 단어에 의한 높임 표현도 있다. “춘부장은 잘 계신가?(춘부장은 잘 계신가?), 장인, 장모님 오십시오.(장인, 장모님 오십시오.)” 따위에 쓰인 한자어들인데 이 방식은 표준어와 같다.

## 6. 문장 종결

이른바 종결어미에 의해서 문장을 끝마치는 표현을 말한다.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끝맺는 경우,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 시키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것으로 끝맺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문장 종결은 어말어미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 높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1) 진술형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끝맺는 문장을 말한다.

- ㉠ 내 한번 **혀** 보**저**.(내가 한번 해 보지.)
- ㉡ 켜 쉼 감시몬 뜯 쉼도 **가**주.(켜 소도 가고 있으면 뜯 소도 가지.)
- ㉢ 쉼 올린 사름이라 부난 아명 바빠도 산테러 올랑 **돌아**봄**네**다.(소 올린 사람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산에 올라 돌아봅니다.)

위 세 문장은 진술의 양식을 빌리고 있는 문장으로, ㉠의 ‘-저’는 ‘혀라체’, ㉡의 ‘-주’는 ‘혀여체’, ㉢의 ‘-네다’는 ‘흡서체’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 이밖에 ‘혀라체’ 진술형 어미로 ‘-니다, -나, -라, -네’ 등이 있고, ‘혀여체’ 진술형 어미로는 ‘-서, -어, -네, -나게, -메’ 등이, ‘흡서체’ 진술형 어미로는 ‘-네다, -수다’가 더 있다.

### 2) 의문형

물어보는 문장 형식으로 ‘예,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의문의 초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문문이 있다.

- ㉠-㉡ 이 아윈 아무 거나 잘 **떡**나?(이 아이는 아무 것이나 잘 떡니?)
  - ㉢ 멧 살 **떡**언**디**?(멧 살 떡었니?)
- ㉣-㉤ 잘 **알**아**질**로**고**?(잘 알아지겠니?)
  - ㉥ 어디 **가**멘?(어데 가니?)
  - ㉦ 밥 **떡**었**순**?(밥 떡었수?)
- ㉧-㉨ 자리훗국 **떡**어**남**데**가**?(자리훗국 떡었었습니까?)
  - ㉩ 이<sup>㉩</sup>건 무**시**겨우**과**?(이것은 무엇입니까?)

㉠,㉣,㉥은 각각 ‘혀라체’, ‘혀여체’, ‘흡서체’에 해당하고, 각각의 ㉡는 ‘예, 아니오’를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며, ㉢는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대개 의문사를 동반한다. 의문사란 의문의 초점이 되는 사물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말로, ‘누게(누구), 어느제(언제), 어디(어디), 무신겨(무엇), 어느(어느), 무사(왜), 어떻게(어떻게), 열매(얼마), 멧(멧)···’ 따위가 있다.

㉠의 ‘혀라체’ 의문형 어미로는 ‘-나, -냐’ 이외에 ‘-니, -네, -다, -디, -가, -고, -카, -코, -나가, -니고, -르레(르라), -지’ 등이 있고, ㉣의 ‘혀여체’ 의문형 어미로는 ‘-르로고, -라, -멘, -서, -안(언), -순’이 있는데 특히 ‘-순’은 예문 ㉣-㉥처럼 여성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점

이 특이하다. ‘홑서체’ 의문형 어미(㉔)는 예문에서 사용된 ‘-ㄴ데가, -우짜’를 비롯하여 ‘-수장(가), -수짜, -ㄴ데까, -ㄴ데강’ 등이 있다.

한편 다음 문장 ㉒과 ㉓은 확인 의문문들이다.

- ㉒ 오늘밤 비 **왁직히네?**(오늘밤 비 올 것 같지 않아?)
- ㉓ 가당 보든 큰 폭낭이 있지 **아년가?**(가다 보면 큰 팽나무 있지 않은가?) <사진 k1015 폭낭>

### 3) 명령형

시키는 내용으로 끝맺는 문장 형식이다.

- ㉑ 과자 상 **졸바로 걸으라.**(곧장 서 똑바로 걸어라.)
- ㉒-㉔ **밭디 강 일흐게.**(밭에 강 일하게.)
  - ㉓ **이레 들어상 밥 먹으십.**(이리로 들어와 밥 먹으십.)
  - ㉔ **잘 감서.**(잘 가십시오.)

㉑는 ‘호라체’ 명령형 어미 ‘-라’가 사용된 예이며, ㉒은 ‘호여체’ 명령형 어미 ‘-게’와 ‘-십’이 사용된 예다. 이 가운데 ㉒-㉔의 ‘십’은 여성들에 의해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밖에도 ‘-아(어) -여’ 등도 있다. ㉓은 ‘홑서체’ 명령형 어미 ‘-ㅂ서’가 사용된 예문인데, 이 ‘-ㅂ서’ 외에 ‘-ㅂ서’라는 어미도 있다.

### 4) 감탄형

감탄 종결은 화자 스스로 느끼는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호라체’ 감탄형 어미로만 나타난다.

- ㉑-㉒ **놈은 일 버칭 죽어지는데 갈라지영 잘도 **참고나.****(남은 일 부쳐 죽겠는데 드러누워 잘도 자는구나.)
- ㉓ **어린 송애기가 밧도 잘 **갈압네.****(어린 송아지가 밧도 잘 가는구나.)

### 5) 청유형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문장 끝맺음이다.

- ㉑ **우리 이제랑 집의 **가게.****(우리 이제랑 집에 가자.)
- ㉒ **먹을 거 먹어져시때 반이나 마탕 **가주.****(먹을 거 먹었으니 반기나 말아 가자.)
- ㉓ **그 일이랑 우리가 나상 **처리협주.****(그 일일랑 우리가 나서서 처리합시다.)

㉑은 ‘호라체’ 청유형 어미, ㉒은 ‘호여체’ 청유형 어미, ㉓은 ‘홑서체’ 청유형이다.

## V. 어 휘

제주 해협은 제주도를 섬으로 만들었다. 제주 해협은 늘 바람이 살고 있어 거칠다. 옛 선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섬(제주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서북풍이라야 하고, 나올 때는 동남풍이라야 한다. 만일 순풍을 만나면 한 조각의 배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이면 건널 수 있으나, 동남풍을 만나지 못하면 매나 송골매의 날개가 있다고 하나 일 년의 세월이 바뀔다 하더라도 건널 수가 없다. 바다의 파도는 동남쪽이 낮고 서북쪽이 높다. 들어갈 때는 그 기세가 조류를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같아서 배의 운항이 자못 쉬우나, 나올 때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형세여서 배의 운항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와 목포 사이를 오가는 연락선을 타 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이 제주 해협이 제주 문화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토끼섬’(북제주군 구좌읍)을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 만들었듯이 제주 해협이 제주어를 방언학의 빛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닌가 한다.

### 1. 중세어

제주어에 “사람은 궤는 덜로 가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사람은 사랑하는 데로 간다.”로 이해한 것은 대학생이 되어서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사람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데로 간다.’는 것쯤으로 알고 있었다. ‘궤다’를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하여 북적거리다.’라는 ‘괴다’로 이해한 결과다. 대학생이 되어 고어사전을 찾아보며 ‘궤다’는 ‘괴다’의 방언형으로 ‘사랑하다’라는 뜻을 지닌 중세 어휘임을 알게 되고, 자연스레 어른을 잘 모시는 일, 하나뿐인 외아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을 ‘궤삼봉’이라 말하는 것도 바로 이 ‘괴다’와 관련 있음을 알게 되었다.(물론 ‘궤삼봉’을 사전식으로 풀이하면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일’을 말한다.)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를 ‘쌍둥이·쌍둥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궤오기·궤우기·궤에기’라 한다. 이 ‘궤오기·궤우기·궤에기’는 나란하다는 뜻이 들어 있는 중세어 ‘궤다’(竝)에서 파생한 어휘들이며, 이 가운데 ‘궤오기’(雙生子)는 《훈몽자회》(訓蒙字會)에도 나타난다.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하게 있어서 하나의 산체를 이루고 있는 오름을 ‘궤른오름’이라 부르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k1016 궤른오름>

어디 그뿐인가. 이런 부류의 예는 너무나 많다. “이번은 큰년이 그릇 설러라.”(이번은 큰딸이 그릇 치워라.), “밥 다 먹어서메 상 설러볼라.”(밥 다 먹었으니 상 치워버려라.), “그 일 설러분 때가 어느 제짱?”(그 일 정리한 때가 언제입니까?)의 ‘설러라, 설러볼라, 설러분’ 등은 ‘건다, 치우다, 정리하다’의 뜻을 지닌 중세어 ‘설다’의 방언형이고, “이 칼 보미언 못 씨키여.”(이 칼 녹슬어 못 쓰겠다.)의 ‘보미다’는 중세어 ‘보미다’, “느쟁이로 느쟁이떡 혜연 먹어수다.”(나깨로 나깨떡 해서 먹었습니다.)의 ‘느쟁이, 느쟁이’는 중세어 ‘느쟁이’, “보리허단 보난 ㄱ시락 탄 막 두드레기 나수다.”(보리 하다 보니 까끄라기 타서 마구 두드레기 났습니다.)의 ‘ㄱ시락’은 중세어 ‘ㄱ스라기’, “돌마기 돌안 입었구나.”(개썰단추 달아 입었구나.)나 “돌매기도 곱다.”(개썰단추도 곱다.)의 ‘돌마기, 돌매기’는 중세어 ‘돌마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세어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른바 ‘아래아’(으)와 ‘아래아’가 겹친 쌍아래아인 ‘으’가 쓰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말해준다. ‘말(馬), 다리(橋), ㄱ세(剪), 하루(一日)와 ‘으라이(諸), 으섯(六), 으답(八)’ 등이 그 예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음가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노인들은 “돌 솟았저.”(달(月) 솟았다)와 “돌 솟았저.”(돌(石) 솟았다)를 정확히 구분하여 발음하고, 발음이 다르니 그 뜻도 분명히 구분한다. ‘달이 떴으니 그렇게 어둡지 않겠다’라든가 ‘돌이 길바닥 위로 솟아올랐으니 걸을 때 조심해야겠다’ 하고 살피며 걷는다. 그러나 50대 이하에서는 그러지 못해 ‘오’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아에 변화의 결과인 ‘아’로 발음하여 말맛을 없애 버리기도 한다. 집 주변과 관련한 몇 어휘를 더 보자.

• 올레 <사진 k1017 올레>

사진에 따라,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거 문화에서 볼 때 제주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어휘는 중세어 ‘오래’에서 온 말이다.

- 오래 문(門)-(석봉 천자문)
- 문 오래며 과실 남글(門巷果木)-(소학언해6)

위 첫 예문에서는 ‘문(門)’의 뜻이 드러나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 제주어에서와 같은 ‘골목’의 의미가 엿보인다. ‘올레’라 된 것은 /ㅁ/와 /ㄱ/가 변별력이 없어진 결과이다.

• 우영

이 ‘우영’은 달리 ‘우연, 위연’이라고도 하는데, 중세어 ‘위안’에서 온 것이다.

- 園: 위안 원-(훈몽자회)
- 넷 위안헛 너는 슬프도다(慘澹故園烟)-(두시언해 3:64)
- 위안해 토란과 바물 거두워드릴시 오으로 가난티 아니하도다(園收粟不全貧)-(두시언해7:21)
- 위안 소뻬 곳가지를 더르며 기로물 드던히 너폴디니(園裏花枝任短長)-(남명상22)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동산·뜨락·전원’의 의미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 ‘위안’은 격변화할 때는 마치 ‘ㅎ중성체언’처럼 ‘위안히·위안호로·위안홀’ 등으로 변화한다.

- 李生의 위안히 거츨 듯호니(李生園欲荒)-(두시언해(초)22:2)
- 어버실 아바도더 오직 저고맛 위안호로 호눗다(養親唯小園)-(두시언해(초)21:23)
- 일흠난 위안홀 얻도다(得名園)-(두시언해(초)8:11)

• 우жат

‘우+жат’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우’는 중세어 ‘울(울ㅎ)’이다.

- 울 謂籬-(훈민정음)
- 藩 울 번-(훈몽자회)
- 놀나 매는 울 그새 툃기를 티디 아니호노니라-(남명집)

현대어에 오면 이 ‘울’이 ‘울타리’에서처럼 ‘울’이 사용되기도 한지만 한편, ‘이’모음이 덧붙여져서 ‘우리’라는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돼지우리, 우리 안에 갇힌 병아리 등).

‘жат’은 ‘城’을 뜻하는 말이다. 지금도 한라산으로 올라가면서 ‘하жат→중жат→상жат’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의 ‘жат’이 바로 이 어휘인데, 이 또한 중세어 ‘жат[城]’이다.

- 城 жат 성-(훈몽자회)



◦ 외로윈 자세 畧 氣運이 어득호도다-(두시언해)

그래서 ‘밧갓 · 갓피 · 갓안ㅎ’ 등 합성어가 가능하다.

• 통시 <사진 k1018 통시>

‘돛통 · 돛통시’라고도 말해지는데, ㉔뒷간(경남 · 전라 · 제주), ㉕돼지 우리, 변소의 뜻으로 쓰인다. 이에 해당하는 중세 어휘로 ‘통시’가 있음을 본다.

◦ 시혹 부테며 지상 량반 반상에 저근덜 올와 잇다가 도로 통시에 쏩이로라 호고-(칠대 만법13)

제주어의 ‘통시’는 중세어 ‘통시’가 단모음화 된 어휘이다.

## 2. 한자어

‘허멍이 문서(세)’라는 관용 표현이 있다. ‘쓸모없는 문서’ 또는 ‘필요 없는 문서’라는 뜻으로, 이 표현이 만들어진 데는 허명(許溟)이라는 목사가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에서 비롯한다.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권4, 甲戌 14년)에 따르면, “이해(1814년) 목사 허명은 잡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내는 수세(水稅)를 폐지하고 자신의 돈 900냥을 공용으로 보충하니 허명(許溟)의 치정(治政)을 백성들은 청백(淸白)의 덕이라 칭송하여 비를 세웠다.”(是歲牧使許溟罷潛女採藿水稅自備錢九百餘兩以補公用許溟治政淸白民稱德立碑)는 것이다. 허명 목사가 어려운 잡녀들을 대신하여 수세를 내주었으니 세금을 내고 받는 증서(이를 제주어로는 ‘폐지’라고 한다) 곧 ‘폐지’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 필요 없는 증서나 쓸모없는 문서 따위를 ‘허멍이 문서(세)’라고 한다. 이와 관련 미루어 짐작하는 바지만 이는 제주어에 선비 문화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한다.

정치를 베풀러 왔든 유배를 왔든 제주도와 관련 있는 선비로는 광해군을 비롯하여 김만회 · 김상헌 · 김윤식 · 김 정 · 김정희 · 김춘택 · 박영효 · 송시열 · 신명규 · 이 건 · 이형상 · 임관주 · 임 제 · 정 온 · 조관빈 · 조정철 · 최익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양으로 음으로 제주 문화 내지 제주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벌초허는 사름어시믄 골충웨는 겁주.(벌초하는 사람 없으면 고충되는 거지요.)
- 계난 구기가 그거라.(그러니까 구구가 그거라.)
- 경혜 꿩도 구눔은 지각헌 사름이라.(그래 보여도 궁흥은 꼭 찬 사람이야.)
- 큰물에 강 서답호영 오라.(큰물에 가 세답하고 오너라.)
- 해여 땡기는 게 꼭 승시 남직허다.(해 다니는 게 꼭 흥사가 날 것 같다.)
- 어뎡사 승악헌지.(어찌나 흥악한지.)
- 웨가에 식게 먹으레 갓다 와수다.(외가에 제사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 이 식게 테물이라도 먹읍서.(이 제사 퇴물이라도 먹으십시오.)

위 예문에서 ‘골충 · 구기 · 구눔 · 서답 · 승시 · 승악 · 식게 · 테물’은 각각 한자어 ‘고충(古塚) · 구구(九九) · 궁흥(窮凶) · 세답(洗踏) · 흥사(凶事) · 흥악(凶惡) · 식가(式暇) · 퇴물(退物)’

등에서 비롯한 어휘들이다.

‘식가’의 경우를 보면, 사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식가(式暇) ㉮ 관원에게 주던 정기 휴가. 집안의 기제사 따위가 있을 때에 주었다.(《표준국어대사전》)

식가(式暇) ㉮ 조선 때 벼슬아치가 집안의 기제사에 받던 휴가.(《우리말큰사전》)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제주어 ‘식게’는 한자 어휘 ‘式暇’의 방언 발화형임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경국대전》(권1, 吏典 給假)의 “給假 凡有故者啓達給假 … 時享式暇服制身病則不啓…”라는 내용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어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빼단이 소곱에 화제를 내언 놓안 이신 거라.(빼단이 속에 화제를 내어서 놓아 있는 거야.)” “이 미선으로 푸김시라.(이 미선으로 부치고 있어라.)”의 ‘화제·미선’은 각각 한자어 ‘화제(和劑)·미선(尾扇)’으로 한자어가 그대로 쓰인 예이다.

### 3. 몽골어

제주도와 몽골은 사신을 파견할 때 제주 성주를 동행하게 한 1266년부터 고려에 귀속되는 1367년까지 약 100 년 동안 관계를 맺는다. 3대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몽골어가 제주어의 한 켠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몽골을 축소하면 제주도요, 제주도를 확대하면 몽골’이라는 표현대로 몽골 사람들은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이곳의 자연에 그만 탄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는 그야말로 자연적인 철책이 되고, 목초는 마치 계단처럼 봄에는 해안에서부터 산 쪽으로 자라고, 겨울이 들면서부터는 중산간에서 해안으로 말라 내려오니 마소들을 그냥 내버려도 문제될 게 없는 일종의 종년목장이다. 제주도 목장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원 나라가 설치한 14개의 목장 가운데 제주도 목장을 제일로 쳤던 것일까. 그래서 원 나라는 1276년에 말 160필을 가지고 수산평에 와서 방목하고, 1288년 ‘마축자장별감’을 두고, 1300년 궁중용 마필을 방목했던 것이다. 이때 말이나 목장에 관련된 목축 어휘가 주축이 되어 국경을 넘어 제주도로 들어온 것이다.

- 가라(말): 털빛이 까만 말 <사진 k1019 가라말>
- 가달석: 말 위에 타 앉았을 때 말을 부리기 위하여 양끝은 입에 물리는 재갈에 잡아매고, 양 가닥의 길이가 같게 꼬부려 접은 고삐 줄
- 고들게친: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쟁거리끈)
- 고라(말): 털빛이 누런 말 <사진 k1020 고라말>
- 구렁(말): 털빛이 밤색인 말
- 녹대쉬염: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구레나룻)
- 다간: 두 살의 소(몽골에서는 어린 말을 뜻함)
- 드사리: 머슴살이하는 사람(머슴아이)
- 복닥: 물건에 씌워진 껍질 또는 물건 위에 덧씌어진 모자 따위
- 부루(말): 털빛이 하얀 말
- 적다(말): 털빛이 붉은 말 <사진 k1021 적다말>

- 주레(주네): 피리. 취주용 악기의 한 가지
- 지달(쓰다): 마소의 발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게 몸에 동여 묶는 일

이밖에 다음과 같은 어휘도 몽골어 차용으로 보인다.

- 고통

사전에 따라 ‘조문’(弔問)이나 ‘조상(弔喪)하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설명되어 있는데, 몽골 문어 ‘qurim’의 차용어다. 이 ‘qurim’은 ‘quri-’(모이다. 그 뜻을 좀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친척끼리 모이는 것을 말한다) 동사의 어간에 명사화 접미사 {-m}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명사다. 《몽어유해》(蒙語類解)에 “宴 잔채 후립(上 40, 禮度)”이라는 구절이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 고적

‘일가에 장사가 난 때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이나 쌀’로, 몽골 문어 ‘kesig’(보시하는 물건·은혜)에서 온 어휘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의미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둘째는 어휘론적 기준에서 볼 때 차용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체청문감》(五體淸文鑑)에 ‘kesek’(肉塊, 飯肉類)이 나타난다. 어중에서 s>c의 변화는 매의 종류인 ‘꺨진’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 도곰

말 잔등과 안장 사이에 엮어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까는 물건 곧 ‘땀치’를 말한다. 또 제주어에 ‘도곰 수건’과 ‘안장 도곰’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곰 수건’이란 “해녀가 바다에 들 때 입는, 음부를 가리는 옷”을 말하고, ‘안장 도곰’은 “안장을 씌울 때 말등이 상하지 않게 등을 덮어주는 물건”으로 설명하여 ‘도곰’과 같다. 《몽어유해》(蒙語類解)의 “馬 韁 드래 토흠”(鞍轡)이 보인다. 이 ‘토흠’이 바로 ‘도곰’이다. 몽골어 ‘toxom’은 동사 어간 ‘tox-’(기다란 물건을 걸치다)에 명사화 접미사 {-m}(동작의 가능성이나 행위의 과정을 나타냄)이 연결되어 형성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 득사리

사전에 따라 ‘머슴애’·‘머슴살이하는 아이’나 ‘더살이·장남살이’라 하여 표준어 ‘머슴살이’로 설명하고 있다. 또 ‘더사리’라 하여 표준어 ‘머슴, 장남’이라 풀이하고 있다. 다같이 주인을 도와주는 ‘머슴’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 결과다. 이 ‘득사리’라는 제주어는 몽골 문어 ‘tusala-’(돕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 수록

‘뽕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려 떼를 이루다’를 ‘수록짓다’, ‘뽕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리다’를 ‘수록츄다’라는 설명에서 ‘수록’은 ‘떼·무리’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몽어유해》에 “群 무리 수록”(下 43, 雜語)이 보인다. 이 ‘무리’를 뜻하는 어휘 ‘수록’이 바로 몽골 문어 ‘suruy’(무리·집합)에서 온 어휘다.

- 우룩 (맞추다)

‘날짐승 자웅(雌雄)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고 응하다’를 ‘우룩맞추다’라 한다. 《몽어유해》

에는 “親 어버이 우룩”(上8. 人倫)을 비롯하여, “異姓親 --겨리 부루지거 우룩”(상9. 人倫), “雙親 -- 터긋 우룩”(4. 人倫補)·“養親 --ㅎ다 우룩 터지거뒤”(12. 人事補)·“榮親 --ㅎ다 우룩 계구루뒤”(12. 人事補)·“悅親 --ㅎ다 우룩 바얏하뒤”(12. 人事補) 등이 있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몽골 문어 ‘uruγ’(친척, 인척)(현대 몽골어에서는 ‘태아’·‘陽物’의 뜻이 있음)에서 차용되었다.

• 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건넬 때 하는 말’로, 표준어 ‘자’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제주어로, 몽골어와 동형이다. 몽골어에서는 ‘ma’나 ‘mai’인데, 제주어와 차이가 있다면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 부애

‘어부애’라고도 말해지는데, ‘어린아이에게 업히라고 할 때에 재롱으로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 표준어 ‘어부바’에 해당한다.

이 어휘에 맞먹는 몽골 문어는 ‘bübei’(bybei; lullaby, rockaby)다. 아기를 재울 때 하는 ‘자랑자랑’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는 ‘bübein dagun’이다.

조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휘는 금지사 {bü}(~하지 마라)와 {bei}(공포, 두려움)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합성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어린이와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어중의 [b]는 약화된다면 제주어 ‘부애’와 같게 된다.

#### 4. 특이어

여기서는 특이한 어휘 몇을 들기로 한다.

• 비바리

바다와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어휘로 ‘비바리’라는 제주어가 있다. 이제는 제주어의 대명사처럼 쓰이는데, 원래는 ‘전복을 따는 사람’을 말한다. 이 ‘비바리’는 비’와 접미사 ‘바리’로 이루어진 어휘로, ‘비’가 ‘전복’을 뜻한다. 이는 12세기 초 문헌인 《계림유사》(鷄林類事)의 ‘복왈필’(鰓曰必, 전복을 ‘비/빳’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비/빳’이 쓰인 제주어에서도 ‘전복’이란 뜻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전복을 따는 도구를 ‘빳창’이라 하고, 전복의 암컷을 ‘암빳’, 수컷을 ‘수빳’이라 하고, 지명 ‘수빳여’는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의 바다 이름으로 ‘수빳’이 많이 살고 있다는 데서 붙은 이름이며, 지명 ‘빳여’(제주시 도두동 바다 이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바다 이름) 또한 전복이 많이 살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니 ‘비바리’의 원래 의미는 ‘전복을 따는 사람’을 말하며, 이런 작업은 주로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잠녀’를 뜻하다가 그 의미가 축소되어 ‘처녀’로 쓰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처녀’라는 뜻은 아니다. <사진 k1022 비창>

• 속다

제주도 인사말 가운데 ‘속암수다’가 있는데, 표준어 ‘속다’와 형태가 같아서 ‘남의 거짓이나 꺾에 넘어가다.’는 의미로 오해받는 어휘다. ‘수고하다, 고생하다’를 뜻하는 제주어 ‘속다’는 중세 어휘 ‘석다’(腐)에서 온 말로, ‘수고하고, 고생하려면’ 속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 도새기 <사진 k1023 도새기>

돼지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다. 중세 어휘로는 ‘돛, 돌, 돛’ 등으로 나타난다.

苑圍엿 도톨 티샤 …(용비어천가)

猪 돌 데 豕 돌 시(훈몽자회)

豕 돛 豚 되야지(물명고)

결국 ‘도새기’는 돼지를 나타내는 ‘돛’에 동물 따위를 작게 만드는 축소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로, 새끼 돼지가 원래의 뜻이나 지금은 돼지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확대되어 쓰인다. 어린 돼지를 ‘자릿도새기’라 하는데, ‘아직은 두 마리를 같은 우리에 넣고 길러야 할 정도로 어린 돼지’를 뜻한다.

• 늪뻬

사전식으로 풀이하면 그 첫째의 뜻은 ‘무의 뿌리만을 일컫는 말’을, 둘째는 ‘무’를 의미한다. 지금은 두 번째 의미로만 널리 쓰이고 있다. 가끔 몽골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늪뻬’가 특이한 어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무의 잎과 줄기 곧 무청은 먹지 않는다. 오직 땅속에 묻혔던 부분만을 먹는데, 이 부분이 마치 나무뿌리처럼 땅에 박혀 있어서 나무를 의미하는 ‘늪’에 ‘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어휘다.

• 상뻬

행주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다. ‘상(床)+비(帚)’로 이루어진 어휘로, 직역하면 ‘상을 쓰는 비’가 된다. 비로 상을 쓸 수가 없는 일이니 그 일을 행주가 담당하는 것이다. 행주와 비의 차이는 닦고 쓸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깨끗하게 하는 기능은 같다’고 생각한 결과다. ‘상뻬’는 질+방>질방(질뻬), 뿔+방>뿔방(뿔뻬) 푼+방>푼방(푼뻬)처럼 발음을 표기법으로 채택한 어휘다.

• 오름 <사진 k1024 오름>

‘오름, 오름’은 제주어로 기생화산을 말한다. 기생화산이 산 중턱이나 기슭에 새로 분출해서 생긴 화산이란 뜻이니, 제주에서 말하는 산이나 봉은 모두 ‘오름’인 셈이다. ‘오름’이 몽골어나 만주어에서 왔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으나, 이 어휘가 신라 향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꼭 그렇게만 고집할 수는 없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진평왕(眞平王) 시절 세 화랑이 풍악이라는 산에 놀러가려 할 때 갑자기 혜성이 나타나 삼태성(三台星)을 범하려 하므로 이상히 여겨 떠나기를 중지하려 하자 용천사(融天師)란 스님이 ‘혜성가(彗星歌)’를 지어 부르니 괴변이 사라지는 한편, 침입했던 왜구가 물러갔다고 한다. 바로 이 ‘혜성가’ 제5 구절에 ‘岳音’이란 어휘가 보이는데, 이것이 곧 ‘오름’을 뜻한다. 또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뽴老音’이라 표기하고, 특이한 제주어의 예로 들고 있다. ‘岳音·뽴老音·兀音’들은 제주어 ‘오름’을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표기한 것이며, 고유어 ‘오르다’에서 온 것 말고는 달리 상상할 수는 없다.

• 굴목 <사진 k1025 굴목>

이 어휘는 ‘굴(穴)+목(목)’으로 분석된다. ‘굴’은 ‘穴’의 뜻이다. 그러니 까끄라기와 같은 연료를 넣고 ‘구그네’로 집어넣기도 하고, 재(‘불치’라고 한다)를 끄집어내기도 한다.

‘굴목’을 지역에 따라 ‘굴목’이라고도 하니 “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이란 뜻을 지닌 ‘목’의 다른 형태다. 곧 ‘굴목’은 사전의 설명대로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부분”에 맞는 적합한 의미다.

표준어에 해당하는 어휘는 없다. 함경도와 평안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굴뚝’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놀굽 <사진 k1026 놀굽/놀>

이 어휘는 ‘놀+굽’으로 분석 가능하다. ‘놀’은 제주어 “깊이나 풀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둥그런 더미를 지어올린다”라는 뜻을 지닌 ‘놀다’의 어간에 해당한다. 이는 중세어 ‘누르-, 누로-(壓)’에서 온 말이다. ‘보리짚’으로 ‘놀’을 만들 때를 연상해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놀’은 무접 파생어(신-신다, 꿩-꿩다, 띠-띠다 등)가 되는 셈이다.

• 배똥

배똥의 뜻이다. ‘배똥’이라고 한다. 표준어 ‘배똥’은 ‘뱃(腹)+ㅅ+똥(中)’으로 구성된다. 결국 ‘뱃똥>뱃똥>뱃똥>배똥’으로 발달하였다. 반면 제주어의 ‘배똥’은 ‘뱃+ㅅ+똥’으로 형성된 어휘다. 여기서 ‘똥’은 ‘식물의 줄기에서 꽃이 피는 줄기’로, 꽃땀이를 ‘똥땀똥 똥땀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땀똥’을 의미한다. ‘뱃똥>뱃똥>배똥’으로 배설물과는 관계가 없다.

• 감저와 지실

표준어 고구마와 감자를 뜻한다.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760년경이고 감자는 그보다 60년이 늦은 1824~5년 경이다. ‘감저’는 ‘감저’ 또는 ‘감즈’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한자어 감저(甘藷)의 반영이다. 뜻도 지금과는 다른 고구마의 뜻이다. 《물명고》에 감저 馬鈴薯 고금아 蕃藷라는 구절에서 ‘고금아’라는 어휘가 처음 보인다. 그 이후 ‘감저’는 고구마와 감자로 의미가 분화된 것이다. 반면 제주어에서는 ‘감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며, ‘감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므로 ‘지실, 지슬’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 고양이와 식

표준어 고양이와 살쥬이를 뜻한다.

고양이를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고양잇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원래 살쥬이를 길들인 것이다. 특히 턱과 송곳니가 발달해서 육식을 주로 한다. 발톱은 자유롭게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으며, 눈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음.” 정도일 것이다.

◦ 貓 괴 묘(훈몽자회)

◦ 貓兒 괴 郎貓 수괴 兒貓 수괴 女貓 암괴 花貓 어룡괴 豹花貓 금괴 金絲貓 금괴 黑貓 거문괴 白貓 셴괴 灰貓 지괴 猫走仰 괴 흘레 (역어유해)

인용에서 보듯, 그 종류도 종류지만 고양이 옛말이 ‘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현대국

어 고양이는 ‘괴+양이(접사)>괴양이>고양이’로 발달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세 어휘 ‘괴’는 현대국어의 ‘괴발개발, 괴발디딤, 도둑괴, 이괴’ 따위에서도 고양이라는 뜻으로 ‘괴’가 남아 있음을 본다. 물론 이 어휘들의 뜻은 각각, ‘괴발개발’은 고양이 발과 개(犬)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제주어로는 ‘게발독발’ 또는 ‘독발개발’이라 하며, 개 발과 닭의 발이란 뜻이다.)을, ‘괴발디딤’은 고양이가 아주 조용하게 발을 디디듯이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레 발을 디디는 것을, ‘도둑괴’는 도둑고양이라는 뜻으로, ‘이괴’는 감탄사로, 고양이나 도둑을 쫓을 때 지르는 소리를 말한다.

이런 동물을 제주에서는 ‘고녕이, 고녕이, 궤’라 한다. ‘고녕이’와 ‘고녕이’가 현대국어 ‘고양이’라고 한다면, 특히 형태인 ‘궤’는 바로 중세 어휘 ‘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살쟁이는 ‘고양잇과의 포유동물로, 고양이와 비슷하고 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꼬리는 길고 사지는 짧으며 발톱은 작고 날카롭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다.

- 狸 숲 리 俗呼野猫(훈몽자회)
- 狸骨 숲기 뼈(동의보감)
- 野猫 숲(역어유해)
- 狸는 貳괴라(원각경언해)

이 인용에서는 살쟁이의 중세 어형이 ‘숲’임을 알 수 있는데, 《역어유해》의 ‘野猫’와 《원각경언해》의 표현에 관심이 간다. 각각 ‘들고양이’와 ‘산고양이’ 뜻으로, 고양이가 사전 풀이처럼 ‘원래 살쟁이를 길들인 것’이라는 설명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현대국어 ‘살쟁이’는 ‘삼(숲)+괴+양이’로 이루어진 어휘다.

살쟁이를 제주어로는 ‘식, 숙’이라고 하는데, 이 어휘들은 ‘숲>숙>식, 숙’의 발달 과정을 거친 것이다. 곧, 중세 어휘 ‘숲’에서 ‘크’이 탈락하고(뽕>독 따위에서 확인됨.) 이른바 아래아가 ‘ㅣ’(ㅁ슴>ㅁ심 따위에서 확인됨.) 또는 ‘ㅡ’(사름>사름 따위에서 확인됨)로 변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숙, 식’이 다른 동물 이름과 만나면 ‘살쟁이 무늬를 한’이라는 일종의 접두사로 쓰인다는 점이다. 온몸에 칙덩굴 같은 어롱어롱한 무늬가 있는 소인 ‘칙소’를 ‘식췌’ 또는 ‘숙췌’라 하는데, 이는 ‘살쟁이 무늬를 한 소’라는 뜻이다. 다음과 같은 어휘도 좋은 참고가 된다.

- 숙돛: 털빛이 검고 누르스름한 돼지
- 숙뿤야지: 털빛이 검고 누르스름한 돼지
- 숙어럭췌: 털 빛이 흑황백색(黑黃白色)으로 얼럭얼럭한 소

• 산과 산담 <사진 k1027 산과 산담>

산은 ‘무덤, 산소’의 뜻이다. ‘괴 쓰다’를 ‘산 쓰다’, ‘뿤자리’를 ‘산터’, 좋은 뿤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을 ‘구산ㅎ다’라 하는 데서 알 수 있고, 다음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뿤 해 소분 안 뿤겨부난 산 잊어부런 마췌.”(뿤 해 소분 안 다녀서 산소 잊어버렸습니다.)  
 “계난 산 좃지 못해냐?”(그러니까 산소 찾지 못했니?)

“불흙주.”(불효지요.)

“나영 ㄱ찌 글라 산 좃아보게.”(나하고 같이 가자, 산소 찾아보게.)

한편, ‘산담’은 무덤에 소나 말의 출입을 방지하고, 화입(火入)에 따른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덤 주위로 네모지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사전에 따라 ‘사성’(莎城)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두 어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곧 쌓는 재료가 ‘흙’이나 ‘돌’이냐 하는 것과 무덤 뒤만 쌓느냐 아니면 무덤 전체를 둘러쌓느냐는 점이다. 신(神)의 출입을 위하여 시문(神門)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덤에 따라 동자석(童子石)을 세우기도 하는데, ‘산담’에서도 제주도의 돌문화를 엿볼 수 있다.

• 왕과 와

표준어 ‘우아’로, 표준어에서는 ‘소나 말을 멈추게 하거나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가볍게 달래는 소리’로 소나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어 ‘와’는 말을 세울 때, 소를 세울 때는 ‘왕’이라 한다.

소나 돼지 따위를 몰 때는 ‘식식’이라 하고, 소를 몰거나 끌어당길 때는 ‘머식게 머식 이식게’ 하는 반면 말을 몰거나 끌어당길 때는 ‘이러’라 한다. 닭이나 참새 따위를 쫓을 때는 ‘수워, 쉬, 주워, 수어, 똑, 쪽, 주어’(쉬)라 한다.

• 정지와 부섭 <사진 k1028 정지>

‘부엌’의 뜻이다. 보통 ‘정지’하면 ①정중간의 준말, ②부엌, ③부뚜막 등의 의미로 쓰인다. ‘정지’ 가운데는 그 형태에 따라 ‘똥정지’가 있다. 집채와는 따로 떨어져 만들어진 부엌을 말한다. 이는 <청산별곡>에 나오는 “에정지 가다가 드로라.”라는 구절의 ‘에정지’와 같다. 곧 ‘에정지’는 ‘에+정지’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에+정지’에서 ‘정지’는 ‘부엌’을 말하는 것이니, 문제는 ‘에’에 있다. 이 ‘에’는 바로 “사방을 뺨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지닌 ‘에우다’(그 준말은 ‘에다’이다)의 어간이다. 그러니 ‘에정지=똥정지’라는 등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부섭’은 중세어 ‘브섭’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어휘다.

브섭爲籠(훈민정음)

庖 브석 포 廚 브석 듀 籠 브석 조(훈몽자회)

제주어에서는 부섭으로 나타난다.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초가 마루 뒤편에 마룻장 밑으로 묻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묻어 고정시켜서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가지 따위로 불을 때는 화로를 말한다.

• 호미와 굴쟁이 <사진 k1029 호미와 굴쟁이>

각각 표준어 낫과 호미를 뜻한다.

호피, 호티>호미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 어휘임을 알 수 있다.

호미爲鉏(훈민정음)

鋤호미 서 小曰鋤 鑿호미 확 大曰鑿(훈몽자회)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난 ㄴ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사모곡)

鋤子 호미 ... 셔셔 기음미논 호미(역어유해)

鋤頭 호미(동문유해)

‘호미’의 기능이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캐는 데 있다.

‘글쟁이’는 날카롭고 뾰족한 끝으로 바닥이나 거죽 따위를 문지르다는 뜻을 지닌 중세 어휘 ‘꺾다’(꺾다)의 어간 ‘꺾-’에 접미사 ‘-앵이’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사마귀라는 곤충의 제주어는 ‘꺾꺾애기’나 손톱 따위로 할퀴기를 잘하는 사람을 ‘꺾꺾와기, 꺾꺾배기, 꺾꺾배기, 꺾꺾왜기’라 하는데 모두 ‘꺾다’와 관련이 깊다. ‘할퀴다’를 ‘꺾꺾다, 꺾꺾다’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갈퀴나 글쟁이의 제주어는 ‘글쟁이’인데 이 어휘는 ‘꺾-’+‘-앵이’로 구성되었다.

### 5. 반복어

제주 4·3사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난 살앗주’라든가 ‘넘으난 넘엇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살다 보니까 살 수 있더라’, ‘넘었으니까 넘었지’라는 한숨과 회한의 말들이다. 이처럼 같은 말을 거듭 표현함으로써 묘한 여운과 함께 이상야릇한 말맛을 느끼게 한다.

이런 반복 표현에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첩어가 있고, ‘사난 살앗주’나 ‘넘으난 넘엇주’처럼 같은 말을 반복한 표현이 있다.

㉠-㉡ 한한하다.(많고 많다.)

㉢ 존존하다.(잘디잘다.)

㉣ 험험하다.(험디험다.)

㉤-㉥ 좋으믄 좋다 곧고 궂이믄 궂다 곱음네께.(좋으면 좋다 말하고, 궂으면 궂다 말합니다.)

㉦ 꿩걸음 걷다.(바쁜 걸음 걷다.)

㉧ 놀음 놀단 보난.(놀음 놀다 보니.)

㉨ 꿈에 시꾸왓직이.(꿈에 나타날 듯이.)

㉠은 어간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함을 나타내고, ㉤은 같은 용언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첩어도 이 분류에 속하는데, 지역성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 아기 이젠 시 설이난 와랑와랑 돌아멩기고.(아기 이제는 세 살이니 와랑와랑 돌아다니고.)

㉤ 조금 시난 열이 와랑와랑 나멍, 헛소리도 허는거라.(조금 있으니 열이 와랑와랑 나멍 헛소리도 하는 거야.)

㉥ 구멍받은 거 구멍물이 와랑와랑 솟이민 물 ㄴ득 차는 밧이주.(구멍받은 거 구멍물이 와랑와랑 솟으면 물 가득 차는 밧이지.)

㉨ 집덜 불 케와부난 스뭇 불궂이 와랑와랑.(집덜 불태워버리니 사뭇 불궂이 활활.)

#### <사진 k1030 들불축제>

㉠의 ‘와랑와랑’은 사람이 세차게 뛰어다니는 모양을, ㉤과 ㉥은 어떤 기운이 성하게 일어

나는 모양을, ㉠은 불이 아주 세차게 타오르는 모양으로, ㉡만 표준어 대역이 가능하다.  
실제 구술발화에서 ‘팡팡’이 쓰인 예문을 보기로 하자.(표준어로 대역은 하지 않는다.)

- 미녕 조사 오난 집 그순새 느리치는디 탁 낱 그순새 **팡팡** 느려차부난 넘어간.
- 새 보리낭에 불을 숨아가난 연기가 **팡팡** 허난 할망이 와선게.
- 지금이야 돈이 농협으로 **팡팡** 나오곡.
- 총소리가 **팡팡** 나난 우리 아버진 아이고 이젠 큰일났젠.
- **팡팡** 두드리는 소리가 나.
- 나는 물이니까 그냥 물이 경 **팡팡** 하지 아녜주.
- 바당에서 베덜 폭발로 **팡팡** 베 부술 때에.
- 아덜 니 깎 나질 못헌덴 **팡팡** 두드리단 이젠 가렌 보내엿주기.
- 눈 **팡팡** 현 때 일허레 간디 육만 막 허는 거라.
- 어멍 봐지난 어멍신디 가지도 안 허연 질레에 넣 **팡팡** 막 울인.
- 이만씩 현 돌을 확 들러내부난 그 물이 황황 돌아가난 그 물구르마가 **팡팡** 돌더라고.

## 6. 관용어

관용어는 관용구, 연어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를 말한다. 나아가 아주 긴밀하게 호응하는 어구도 한데 묶여 말해지기 때문에 또한 관용어로 볼 수 있다.

말과 관련한 관용어를 보면, ‘늑염 들르다(잇몸 들다), 군입 노리다, 늑바디 들르다(잇몸 들다), 늑빨 들르다(이 들다), 본 풀다(내력을 풀다로 주로 무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가리 노리다, 입 들르다, 입 떼다, 입 을다(열다), 입에 게꿈(거품) 물다, 털어 놓다, 주둥이 노리다’ 등이 있다.

- ㉠ 큰질에 보난 진 것 등글엄서라.(한길에 보니 뱀 어정거리더라.)
- ㉡ 부군이러 건들지 아니홉주.(부군이러 건드리지 않지요.)
- ㉢ 칠성은 안칠성 밧칠성이 이서.(칠성은 안칠성 밖칠성이 있어.)

위 예들은 ‘뱀’을 말하는 것으로, ㉠의 ‘진 것’, ㉡의 ‘부군’ ㉢의 ‘칠성’은 다같이 ‘뱀’을 표현하고 있는 관용 표현들이다. ㉠의 ‘진 것’이 기다란 뱀의 형상을 나타낸 표현이라면, ㉡, ㉢은 특히 무속에서 많이 쓰이는데, 직접 나타내지 못하고 에두른 표현들이다. ‘부군’은 한자어 富君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가슴’이 들어간 관용어 또는 연어 표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슴 금착하다(가슴 뜨금하다)=양심에 걸리다. 뜻밖의 자극으로 가슴이 설레다.
- 가슴 느착하다(가슴 ‘느착하다’)=섭섭하다.
- 가슴 답답 애 답답(가슴 답답 애 답답)=답답하다.
- 가슴 답답하다(가슴 답답하다)=일이 잘 풀리지 않다.
- 가슴 답지다(가슴 답답하다)=가슴이 답답하다.
- 가슴에 멍이 들다(가슴에 멍이 들다)=가슴에 한으로 남다.

- 가심 벌리지다(가슴 쪼개지다)=좋지 않은 일로 마음이 몹시 아프다.
- 가심 브러지다(가슴 찢어지다)=마음이 아프다.
- 가심 섰뜻흐다(가슴이 섰뜻하다)=잠시 놀래다.
- 가심 시원흐다(가슴 시원하다)=속이 시원하다. 일이 잘 풀려 속이 후련하다.
- 가심 찢어내리다(가슴 쓸어내리다)=안도하다.
- 가심 아프다(가슴 아프다)=동정하다. 연민의 정을 느끼다. 속상하다.
- 가심 울랑울랑(가슴이 울렁울렁)=조금 흥분된 상태.
- 가심 울렁거리다(가슴 울렁거리다)=흥분하다.
- 가심 췌다(가슴 죄다)=조바심이 생기다.
- 가심 존질루다(가슴 ‘존질루다’)=진정하다.
- 가심 찰랑흐다(가슴 찰랑하다)=몹시 놀라다.
- 가심 치다(가슴 치다)=몹시 안타까워하다.
- 가심 쿵당쿵당(가슴이 쿵쿵)=조마조마하다.
- 가심 탕탕흐다(가슴 탕탕하다)=가슴 뛰다.
- 가심 털리다(가슴 떨리다)=조마조마하다.
- 가심 털어지다(가슴 떨어지다)=낙심하다.
- 가심 튀다(가슴 뛰다)=가슴이 뛰다. 흥분하다.
- 가심 헤씨다(가슴 헤집다)=결백을 주장하다.
- 가슴에 간직흐다(가슴에 간직하다)=잊지 않다.
- 가슴에 맺히다(가슴에 맺히다)=가슴에 맺히다.
- 가슴에 못 박다(가슴에 못 박다)=가슴에 맺히다.
- 가슴에 묻어 두다(가슴에 묻어 두다)=밖으로 내색하지 않다.
- 가슴에 불락 들다(가슴에 불락 들다)=숨이 차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다.
- 가슴에 불 부뜨다(가슴에 불 붙다)=몹시 화가 나다.
- 가슴에 불 부찌다(가슴에 불 붙이다)=의욕이 생기다. 몹시 화가 나다.
- 가슴에 콧다(가슴에 폼다)=간직하다.
- 가슴이 두 근 반 서 근 반(가슴이 두 근 반 서 근 반)=두근거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인사말로 “어디 감수강?”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대답으로 “알양 무신거헐티.”(알아서 무엇하겠니?)라 대답한다면 이는 문장에 사용된 어휘 그대로를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대답은 “기여 착허다.”나 “기냥 놀암지.”라 한다. 이는 “어디 감수강?”을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로 인식한 결과다. 그러니까 인사말도 일종의 관용 표현임을 말해주는 것인데, 자주 쓰는 인사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수강(사름 잇수강): ‘계십니까?’라는 뜻으로,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이 있고 없음을 확인하는 말
- 양 봄서: ‘여보세요.’에 해당
- 말 물으쿠다: ‘말 물겠습시다.’라는 뜻으로 ‘여보세요.’에 해당
- 갓당 오쿠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집을 나갈 때 하는 인사말
- 나 와수다: ‘저 다녀왔습니다.’라는 뜻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는 인사말
- 감수다, 이십서: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뜻으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 살암십서: ‘살고 계십시오.’라는 뜻인데, 오랜 동안 떨어지게 될 경우에 쓰는 인사말
- 속암수다: ‘수고하십니다.’에 해당
- 잘 감서: ‘잘 가십시오.’라는 뜻으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 &lt;부록&gt;

## 제주어 표기법

## 제1장 총 칙

제1항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주어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

## 제2장 자 모

제3항 제주어 표기에 쓰일 글자는 한글 스물 녀자 외에 ‘·와·’ 두 자를 추가하되, ‘ㅣ(이)’ 다음에 배열하고, 이름은 ‘으’, ‘으’로 정한다.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구개음화

제4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곧이	고지	깁히다	거치다
뚛받이	뚛바지	굳히다	구치다
미담이	미다지	달히다	다치다
믄이	므지	문히다	무치다
해돌이	해도지	받히다	바치다

다만, 다음 말들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ㄱ치·ㄱ찌 부치다·부찌다 술부치 췌부치 일가부치 피부치

제5항 ‘ㄱ’이 ‘ㅣ’나 ‘ㅈ, ㅊ’와 결합될 적에 ‘ㅈ’으로, ‘ㅎ’이 ‘ㅣ’나 ‘ㅈ, ㅊ, ㅊ, ㅊ’와 결합될 적에 ‘ㅈ’으로 소리나는 것은 각각 ‘ㄱ’과 함께 ‘ㅈ’, ‘ㅎ’과 함께 ‘ㅈ’으로도 적는다.

겨를·즈를·저를	겨우·제우	겨을·저을·저슬
결단·절단	결박·절박	겹바지·젹바지
기둥·지둥	기름·지름	기와·지에
기침·지침	길·질	길마·질매
향교·상교	향냥·상냥	혀·세
현금·선금	혈기·설기	형·성
효즈·소즈	흉년·승년	힘·심
가울이다·자울이다	건디다·준디다·전디다	

## 제2절 모 음

제6항 ‘·’는 ‘ㄱ’나 ‘ㄴ’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다리(橋)	도리·더리	경흔디	경혼디·경헌디
달(月)	돌·덜	ㄹ지다	고지다·거지다
마슬(里)	모슬·머슬	놀다	놀다·닐다
말(馬)	몰·멀	일흐다	일호다·일허다
바름(風)	보름·버름	호ㅍㅍ·ㅍㅍ	호ㅍㅍ·허ㅍㅍ
술(膚)	솔·설	흔저	혼저·현저
팻(小豆)	푯·푯	홉치	홉치·협치

제7항 ‘ㄴ’은 ‘ㄱ’나 ‘ㅍ·ㅋ’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으든	요든·야든	으망지다	요망지다·야망지다
으듭	요듭·야듭	을다	욕다·역다
으숯	요숯·야숯	을삭다	욕삭다·역삭다
을세	웃세·앗세	을을흐다	욕욕흐다·역역흐다
을가슴	윤가슴·얏가슴	을다	욘다·얏다

제8항 ‘ㅍ’은 ‘ㄱ’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ㅍ’로 적는다.

개(犬)	개곶(浦邊)	내(吾)	내(川)
내음살(臭)	너땃(四五)	대(竹)	대낫(-晝)
대으숯(五六)	대초(棗)	때(時)	매(鷹)
매(鞭)	물매(-鞭)	새(茅)	새들(一月)
새벽(晨)	새스망(新郎)	첫새끼(-雛)	해(多)
개다(晴)	내밀다(突出)	내들다(疾走)	새기다(刻)
새다(曙)	새움흐다(嫉妬)	애쓰다(勞心)	재우다(就寢)
포개다(重疊)	해롭다(害-)	화내다(火-)	
개별(個別)	개판(蓋板)	대강(大綱)	채권(債權)

제9항 ‘ㅌ’은 ‘ㄱ’소리로 변해졌으므로 ‘ㄱ’로 적는다.

네(烟)	베(腹·梨·船)	세(問)	생각(思)
제(灰)	헤(太陽)		
게량(改良)	게획(開會)	네일(來日)	데데(代代)
메일(每日)	역수(額數)	제간(才幹)	제물(財物)
채소(菜蔬)	책(冊)	테(胎)	테만(怠慢)
해동(海東)	행설(行實)		
깨든다(覺)	데흐다(對-)	베다(姪)	베우다(學)
세다(漏)	케다(採)	페다(마구 때림)	

제10항 ‘며, 벼, 꺾’의 ‘ㅋ’은 ‘ㄱ’ 또는 ‘ㅌ’로도 소리나므로 ‘ㅋ’와 함께 ‘ㄱ, ㅌ’로 적는다.

면장·멘장·민장(面長)	면도·멘도·민도(面刀)
--------------	--------------

명·멩·밍(命)	병·벩·빙(病)
병·벩·빙(瓶)	병·벩·빙(餅)
편지·펜지·편지(便紙)	

제11항 ‘니’는 이중모음 ‘네’로 소리나서 단모음으로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네’로 적는다.

케기(魚·肉)	케한(怪漢)	네웨(內外)	네물(賂物)
네염(腦炎)	웨(升)	웨(牛)	웨(鐵)
웨가(外家)	웨(罪)	웨소(最小)	웨직(退職)
웨의(會議)	웨다(爲)		

제12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니(齒)	니	고희(古稀)	고히
니(蟲)	니	논의(論議)	논이
닐리리	닐리리	본의(本義)	본이
디다	디다	예의(禮儀)	예이
띠어쓰기	띠어쓰기	의심(疑心)	이심
무니(紋)	무니	주의(注意)	주이
씩어	씩어	중의(中衣)	중이
티어	티어	한의(漢醫)	한이
희끗희끗	희끗희끗	희롱(戲弄)	히롱
희다(白)	히다	희망(希望)	히망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3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독(鷄) :	독이	독을	독에	독으로	독만	독더래
흙(土) :	흙이	흙을	흙에	흙으로	흙만	흙더래
신(鞋) :	신이	신을	신에	신으로	신만	신더래
손(手) :	손이	손을	손에	손으로	손만	손더래
ㄱ를(粉) :	ㄱ를	ㄱ를을	ㄱ를에	ㄱ를로	ㄱ를만	ㄱ를러래
달(月) :	달이	달을	달에	달로	달만	달러래
질(道路) :	질이	질을	질에	질호로	질만	질러래
		질흙	질에	질로		
말(馬) :	말이	말을	말에	말로	말만	말러래
ㄱ슴(材料) :	ㄱ슴이	ㄱ슴을	ㄱ슴에	ㄱ슴으로	ㄱ슴만	ㄱ슴더래
남(木) :	남이	남을	남에	남으로	남만	남더래
ㅁ슴(心) :	ㅁ슴이	ㅁ슴을	ㅁ슴에	ㅁ슴으로	ㅁ슴만	
	ㅁ슴이	ㅁ슴을	ㅁ슴에	ㅁ슴으로	ㅁ슴만	

으뜸(八) : 으뜸 으뜸을 으뜸에 으뜸으로 으뜸만 으뜸더레  
 입(口) : 입이 입을 입에 입으로 입만 입더레  
 풋(小豆) : 풋 풋을 풋에 풋으로 풋만 풋더레  
 늦(顔) : 늦이 늦을 늦에 늦으로 늦만 늦더레  
 벗(友) : 벗이 벗을 벗에 벗으로 벗만 벗신더레  
 꽃(花) : 꽃이 꽃을 꽃에 꽃으로 꽃만 꽃더레  
 고장(花) : 고장 고장을 고장에 고장으로 고장만 고장더레  
 낭(木) : 낭이 낭을 낭에 낭으로 낭만 낭더레  
 삶(生活) : 삶이 삶을 삶에 삶으로 삶만  
 값(價) : 값이 값을 값에 값으로 값만

새벽(晨) : 새벽이 새벽을 새벽의 새벽인 새벽의도 새벽만  
 박(外) : 박기 박근 박기도 박기만 박기레  
 집안(家內):집안이 집안을 집안의 집안인 집안의도 집안만  
 절간(寺刹):절간이 절간을 절간의 절간인 절간의도 절간만 절간더레  
 산(山) : 산이 산을 산의 산인 산의도 산만 산더레  
 봄(春) : 봄이 봄을 봄의 봄인 봄의도 봄의만  
 밤(夜) : 밤이 밤을 밤의 밤인 밤의도 밤만  
 집(家) : 집이 집을 집의 집인 집의도 집만 집더레  
 밧(外) : 밧기 밧근 밧기도 밧기만 밧기레

마당(場) : 마당이 마당을 마당의 마당인 마당의도 마당만 마당더레  
 바당(海) : 바당이 바당을 바당의 바당인 바당의도 바당만 바당더레  
 방(房) : 방이 방을 방의 방인 방의도 방의만 방더레  
 밤중(夜中):밤중이 밤중을 밤중의 밤중인 밤중의도 밤중만  
 초승(初-) : 초승이 초승을 초승의 초승인 초승의도 초승만  
 낮(晝) : 낮이 낮을 낮의 낮인 낮의도 낮의만  
 곳(藪) : 곳의 곳인 곳의도 곳의만 곳더레  
 앞(前) : 앞이 앞을 앞의 앞인 앞의도 앞의만 앞더레

즈끼·긱(側) : 즺끼·긱이 즺끼·긱을 즺끼·긱되 즺끼·긱된 즺끼·긱되도 즺끼·긱되만 즺끼·긱더레  
 저꺸이 저꺸을 저꺸되 저꺸된 저꺸되도 저꺸되만 저꺸더레  
 저꺸이 저꺸을 저꺸되 저꺸된 저꺸되도 저꺸되만 저꺸더레  
 꺸(末) : 꺸이 꺸을 꺸되 꺸된 꺸되도 꺸되만 꺸더레  
 꺸되

못(池) : 못이 못을 못되 못된 못되도 못되만 못더레  
 밧(底) : 밧이 밧을 밧되 밧된 밧되도 밧되만 밧더레  
 바꺸(外): 바꺸이 바꺸을 바꺸되 바꺸된 바꺸되도 바꺸되만 바꺸더레  
 밧(田) : 밧이 밧을 밧되 밧된 밧되도 밧되만 밧더레  
 뺏(太陽): 뺏이 뺏을 뺏되 뺏된 뺏되도 뺏되만 뺏더레  
 솟(鼎) : 솟이 솟을 솟되 솟된 솟되도 솟되만 솟더레  
 안(內) : 안이 안을 안되 안된 안되도 안되만 안더레  
 안흘  
 안희  
 꺸(邊) : 꺸이 꺸을 꺸되 꺸된 꺸되도 꺸되만 꺸더레  
 머리꺸 : 머리꺸이 머리꺸되 머리꺸되도 머리꺸되만 머리꺸더레



제14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녹다(消) :	녹고	녹지	녹안	녹으민	녹암저	녹았수다
먹다(食) :	먹고	먹지	먹언	먹으민	먹엄저	먹엇수다
신다(履) :	신고	신지	신언	신으민	신엄저	신엇수다
안다(抱) :	안고	안지	안안	안으민	안암저	안았수다
견다(捲) :	견고	견지	견언	견으민	견엄저	견엇수다
받다(受) :	받고	받지	받안	받으민	받암저	받았수다
갈다(耕) :	갈고	갈지	갈안	갈민	갈암저	갈았수다
몰다(驅) :	몰고	몰지	몰안	몰민	몰암저	몰았수다
검다(黑) :	검고	검지	검언	검으민	검엄저	검엇수다
숨다(隱) :	숨고	숨지	숨언	숨으민	숨엄저	숨엇수다
굽다(隱) :	굽고	굽지	굽안	굽으민	굽암저	굽았수다
입다(被) :	입고	입지	입언	입으민	입엄저	입엇수다
낮다(癩) :	낮고	낮지	낮안	낮으민	낮암저	낮았수다
벗다(脫) :	벗고	벗지	벗언	벗으민	벗엄저	벗엇수다
젖다(濕) :	젖고	젖지	젖언	젖으민	젖엄저	젖엇수다
잊다(忘) :	잊고	잊지	잊언	잊으민	잊엄저	잊엇수다
낳다(産) :	낳고	낳지	낳안	낳으민	낳암저	낳았수다
좋다(好) :	좋고	좋지	좋안	좋으민	좋암저	좋았수다
앉다(坐) :	앉고	앉지	앉안	앉으민	앉암저	앉았수다
	아지고	아지지	아잔	아지민	아잠저	아жат수다
	안지고	안지지	안잔	안지민	안잠저	안жат수다
	앗고	앗지	앗안	앗이민	앗암저	앗았수다
긁다(搔) :	긁고	긁지	긁언	긁으민	긁엄저	긁엇수다
굶다(饑餓) :	굶고	굶지	굶언	굶으민	굶엄저	굶엇수다
넓다(廣) :	넓고	넓지	넓언	넓으민	넓엄저	넓엇수다
	넙고	넙지	넙언	넙으민	넙엄저	넙엇수다
끓다(未滿) :	끓고	끓지	끓안	끓으민	끓암저	끓았수다
없다(無) :	없고	없지	없언	없으민		없엇수다
	웁고	웁지	웁언	웁으민		웁엇수다
	웃고	웃지	웃언	웃으민		웃엇수다
	엇고	엇지	엇언	엇으민		엇엇수다
있다(有) :	잇고	잇지	잇언	잇으민		잇엇수다
	식고	식지	시언	시민		시엇수다
			이선	이시민		이섯수다

제15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걸다(掛) :	걸고	걸지	걸민	거니	긴	겁네다
놀다(遊) :	놀고	놀지	놀민	노니	논	눔네다
날다(飛) :	날고	날지	날민	느니	논	눔네다

들다(懸) :	들고	들지	들민	드니	든	듭네다
맹글다(造) :	맹글고	맹글지	맹글민	맹그니	맹근	맹급네다
물다(咬) :	물고	물지	물민	무니	문	몹네다
밀다(推) :	밀고	밀지	밀민	미니	민	밋네다
불다(吹) :	불고	불지	불민	부니	분	붐네다
쓸다(掃) :	쓸고	쓸지	쓸민	쓰니	쓴	썸네다
어질다(賢) :	어질고	어질지	어질민	어지니	어진	어집네다
얼다(凍) :	얼고	얼지	얼민	어니	언	업네다
옴다(開) :	옴고	옴지	옴민	으니	을	을네다
줄다(小) :	줄고	줄지	줄민	즈니	즌	줍네다
팔다(賣) :	팔고	팔지	팔민	푼니	푼	푼네다

## 2.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걸다(步) :	걸고	걸지	걸으민	걸으난	걸언	걸읍네다
굴다(曰) :	굴고	굴지	굴으민	굴으난	굴언	굴읍네다
돌다(走) :	돌고	돌지	돌으민	돌으난	돌언	돌읍네다
듣다(聞) :	듣고	듣지	들으민	들으난	들언	들읍네다
묻다(問) :	묻고	묻지	물으민	물으난	물언	물읍네다
일컫다(稱) :	일컫고	일컫지	일컫으민	일컫으난	일컫언	일컫읍네다

## 3. 어간의 끝 ‘ㅂ’이 ‘ㄱ·ㅌ’로 바뀔 적.

굽다(艷) :	굽고	굽지	고완	고우난	고우민	고왓수다
굽다(燻) :	굽고	굽지	구완	구우난	구우민	구웠수다
케롭다(苦) :	케롭고	케롭지	케로완	케로우난	케로우민	케로왓수다
눅다(臥) :	(눅고)	(눅지)	누완	누우난	누우민	누웠수다
무섭다(恐) :	무섭고	무섭지	무서완	무서우난	무서우민	무서왓수다
믹습다(慄) :	믹습고	믹습지	믹스완	믹스우난	믹스우민	믹스왓수다
밋다(櫓) :	밋고	밋지	미완	미우난	미우민	미웠수다

## 4. 어간의 끝음절 ‘ㄹ’의 ‘ㄹ’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리’로 바뀔 적.

가르다(分) :	가르고	가르지	갈란	갈람저	갈랏수다	가릅서
	갈르고	갈르지	갈란	갈람저	갈랏수다	갈릅서
고르다(調) :	고르고	고르지	골란	골람저	골랏수다	고릅서
	골르고	골르지	골란	골람저	골랏수다	골릅서
나르다(運搬) :	나르고	나르지	날란	날람저	날랏수다	나릅서
	날르고	날르지	날란	날람저	날랏수다	날릅서
다르다(異) :	다르고	다르지	달란	달람저	달랏수다	
	달르고	달르지	달란	달람저	달랏수다	
도르다(返品) :	도르고	도르지	돌란	돌람저	돌랏수다	도릅서
	돌르고	돌르지	돌란	돌람저	돌랏수다	도릅서
므르다(乾) :	므르고	므르지	몰란	몰람저	몰랏수다	
	몰르고	몰르지	몰란	몰람저	몰랏수다	
바르다(正) :	바르고	바르지	발란	발람저	발랏수다	
	발르고	발르지	발란	발람저	발랏수다	

벼르다(塗) :	벼르고	벼르지	벌란	벌람저	벌랏수다	벌릅서
	벌르고	벌르지	벌란	벌람저	벌랏수다	벌릅서
부르다(唱) :	부르고	부르지	불란	불람저	불랏수다	부릅서
	불르고	불르지	불란	불람저	불랏수다	부릅서
사르다(燒) :	사르고	사르지	살란	살람저	살랏수다	사릅서
	살르고	살르지	살란	살람저	살랏수다	사릅서
시르다(載) :	시르고	시르지	실란	실람저	실랏수다	시릅서
	실르고	실르지	실란	실람저	실랏수다	시릅서
쫄르다(短) :	쫄르고	쫄르지	쫄란	쫄람저	쫄랏수다	
	쫄르고	쫄르지	쫄란	쫄람저	쫄랏수다	
할다(舐) :	할르고	할르지	할란	할람저	할랏수다	할릅서

제16항 어간의 끝음절과 어미 ‘-ㅏ/-ㄴ’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가끄다(削) :	가끄고	가끄지	가깐	가깜저	가깜수다	가끄키여
고프다 :	고프고	고프지	고판	고팸저	고팸수다	고프키여
가프다(報) :	가프고	가프지	가판	가팸저	가팸수다	가프키여
거끄다(折) :	거끄고	거끄지	거껌	거껌저	거껌수다	거끄키여
ㄹ트다(如) :	ㄹ트고	ㄹ트지	ㄹ탄	ㄹ탐저	ㄹ탐수다	ㄹ트키여
	ㄹ뜨고	ㄹ뜨지	ㄹ판	ㄹ팸저	ㄹ팸수다	ㄹ뜨키여
나끄다(釣) :	나끄고	나끄지	나깐	나깜저	나깜수다	나끄키여
노프다(高) :	노프고	노프지	노판	노팸저	노팸수다	노프키여
다끄다(修) :	다끄고	다끄지	다깐	다깜저	다깜수다	다끄키여
더프다(蓋) :	더프고	더프지	더껌	더팸저	더팸수다	더프키여
	더뜨고	더뜨지	더판	더팸저	더팸수다	더뜨키여
둥그다(沈漬) :	둥그고	둥그지	둥간	둥감저	둥감수다	둥그키여
마트다(任) :	마트고	마트지	마탄	마탐저	마탐수다	마트키여
무끄다(束) :	무끄고	무끄지	무껌	무껌저	무껌수다	무끄키여
바트다(吐) :	바트고	바트지	바탄	바탐저	바탐수다	바트키여
	바끄고	바끄지	바깐	바깜저	바깜수다	바끄키여
보끄다(炒) :	보끄고	보끄지	보깐	보깜저	보깜수다	보끄키여
부트다(附) :	부트고	부트지	부턴	부팸저	부팸수다	부트키여
	부뜨고	부뜨지	부판	부팸저	부팸수다	부뜨키여
서끄다(混) :	서끄고	서끄지	서껌	서팸저	서팸수다	서끄키여
	서트고	서트지	서턴	서팸저	서팸수다	서트키여
시끄다(載) :	시끄고	시끄지	시껌	시팸저	시팸수다	시끄키여
실프다(厭) :	실프고	실프지	실편	실팸저	실팸수다	실프키여
싱그다(植) :	싱그고	싱그지	싱건	싱검저	싱검수다	싱그키여
아프다(痛) :	아프고	아프지	아판	아팸저	아팸수다	아프키여
야트다(淺) :	야트고	야트지	야탄	야탐저	야탐수다	야트키여
	야프고	야프지	야판	야팸저	야팸수다	야프키여
어프다(覆) :	어프고	어프지	어편	어팸저	어팸수다	어프키여
여끄다(編) :	여끄고	여끄지	여껌	여팸저	여팸수다	여끄키여
	으끄고	으끄지	으간	으감저	으감수다	으끄키여
을프다(詠) :	을프고	을프지	을편	을팸저	을팸수다	을프키여

주끄다(灸) : 주끄고 주끄지 주꺼 주꺼지 주꺼수다 주끄키여  
 지프다(深) : 지프고 지프지 지편 지편지 지편수다 지프키여  
 지프다 : 지프고 지프지 지편 지편지 지편수다 지프키여  
 푸끄다(扇) : 푸끄고 푸끄지 푸꺼 푸꺼지 푸꺼수다 푸끄키여  
 할트다(舐) : 할트고 할트지 할탄 할탐지 할탐수다 할트키여

제17항 용언 어간의 끝 ‘ㅅ’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 대로 적는다.

긋다(劃) : 긋고 긋지 긋언 긋으민 긋엄수다 긋으키여  
 낫다(癒) : 낫고 낫지 낫안 낫으민 낫암수다 낫으키여  
 붓다(浮症) : 붓고 붓지 붓언 붓으민 붓엄수다 붓으키여  
 잇다(繼) : 잇고 잇지 잇언 잇으민 잇엄수다 잇으키여  
 좇다(紡) : 좇고 좇지 좇안 좇으민 좇암수다 좇으키여  
 좇다(拾) : 좇고 좇지 좇언 좇으민 좇엄수다 좇으키여  
 짓다(造) : 짓고 짓지 짓언 짓으민 짓엄수다 짓으키여

제18항 용언의 어간 ‘ㅎ’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 대로 적는다.

거멍ㅎ다 : 거멍ㅎ고 거멍ㅎ지 거멍ㅎ연 거멍ㅎ엄수다  
 기영ㅎ다 : 기영ㅎ고 기영ㅎ지 기영ㅎ연 기영ㅎ엄수다  
 노랑ㅎ다 : 노랑ㅎ고 노랑ㅎ지 노랑ㅎ연 노랑ㅎ엄수다  
 동그랑ㅎ다 : 동그랑ㅎ고 동그랑ㅎ지 동그랑ㅎ연 동그랑ㅎ엄수다  
 만ㅎ다 : 만ㅎ고 만ㅎ지 만ㅎ연 만ㅎ엄수다  
 수랑ㅎ다 : 수랑ㅎ고 수랑ㅎ지 수랑ㅎ연 수랑ㅎ엄수다  
 퍼렁ㅎ다 : 퍼렁ㅎ고 퍼렁ㅎ지 퍼렁ㅎ연 퍼렁ㅎ엄수다

제19항 선어말어미 ‘-았-/-었-’에 해당되는 형태는 ‘-았-/-었-’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보았수다	보았수다	갓주기	갓주기
먹엇고나	먹엇고나	쉬엇다	쉬엇다
ㅎ엇고나	ㅎ엇고나	ㅎ엇저	ㅎ엇저

제20항 연결어미 ‘-면’은 소리나는 대로 ‘-면 --문 --민’으로 적는다.

가면 ·가문 ·가민	갈면 ·갈문 ·갈민
놀면 ·놀문 ·놀민	들으면 ·들으문 ·들으민
먹으면 ·먹으문 ·먹으민	

제21항 종결어미 ‘-저’와 ‘-주(-취)’는 ‘-찌’와 ‘-쥬(-취)’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 ‘-주(-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먹엄저	먹엄찌	먹엇저	먹엇찌
놀암저	놀암찌	늘앗저	늘앗찌
뎛암저	뎛암찌	뎛앗저	뎛앗찌

제22항 서술어 뒤에 덧붙여 존대를 표시하는 ‘마씀’은 소리나는 대로 ‘마씀·마슴·마썸·마심·마씨·마시’로 적는다.

가의 오라서마씀?	가의 가서마슴?
빨리 흥여마썸?	이제 가크라마심?
이건 우리 몰마씨.	이건 우리 쉐마시.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23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살림살이      혜묵이      버을이      들맞이      다듬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수놓음      무끔      보끔      여끔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실웃이      굳이      알긋이

제24항 어간의 끝음절과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ㅣ’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줄 적에는 주는 대로 적는다.

1. ‘-ㅣ’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노피      지피      배아피      떡보끼

2. ‘-ㅣ’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노피      지피      야피      실피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5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꽃잎	끗장	밋천	부엌일	알웃
웃안	웃웃	젓몸살	첫아돌	칼놀
꽃알	헛소리	홀아방	흑내옴살	
끓주리다	맛떡다	빚나가다	빚나다	헛똥다

새파랑ㅎ다    싯꺼멍ㅎ다    엇듣다    짓노랑ㅎ다    짓누렁ㅎ다

다만,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ㄱ을 ㅈ하고, ㄴ을 ㅂ  
림.).

ㄱ	ㄴ	ㄱ	ㄴ
하르방	할으방·하루방	오라방	올아방
하기새	학의새	메칠·메틀	멧일
이틀	일흘	업시네기다	없이여기다
부리나게	불이나게		

제26항 ‘늑(齒 蝨)’는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도 ‘늑’로 소리나므로 ‘늑’로 적는다.

곤늑	덧늑	송곳늑	스랑늑	알늑	앞늑	어금늑
웃늑	젓늑	툽늑	틀늑	ㄱ랑늑	머릿늑	

[붙임] 이 표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제주방언연구회)

<참고문헌>(\*단행본에 한함)>

-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1), 제주문화.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2), 제주문화.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김공철(1999), 탐라어연구, 한국문화사.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출판부.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연구, 도서출판 세림.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사  
 성낙수(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정음사.  
 성낙수(1992),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송상조(1990),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학위논문.  
 우창현(2003),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이승녕(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탐출판사.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현평효 등(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홍중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